

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6권

울산 반구대 암각화

2000

울산대학교 박물관
울산산관역시

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6집

울산 반구대 암각화

2000

울산대학교 박물관
울산광역시

알려두기

1. 반구대암각화의 암면은 주암면과 주변암면으로 나누어 지는데 설명의 편의상 각각의 암면을 A-O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2. 개별그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설명하며, 고유번호 앞의 알파벳문자는 암면을 표시한 것이다.
3. 셀로 작업도면은 실제암벽에서 채록한 것이 아니며, 실내에서 탁본도면과 사진대조를 통해 채록한 것이다.

간행사

울산광역시 언양읍 대곡리에 위치한 반구대 암각화 유적은 국보285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귀중한 우리 역사문화 자산이다. 1971년 학계에 그 존재가 보고된 이래 반구대 암각화 유적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연구자 뿐 아니라, 암각화 유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반구대를 찾아 이 특별한 유적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암각화 유적은 울산의 두 국보 유적 발견이래 30여 년 동안 국내에서 20 여곳 이상이 확인되었지만, 사람과 도구, 여러 가지 바다짐승 및 물짐승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이 반구대 암각화 유적과 같이 넓은 암면에 걸쳐 다양한 구성과 방식으로 새겨진 예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구대 암각화 유적은 발견이래 선사·역사유적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대로 된 평가 및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관심과 연구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었다. 이 유적은 발견이래 학술적으로 종합 조사 보고되었지만, 전문적인 조사, 연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실측조사자료가 작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댐 수몰유적이라는 이유로 보존 관리대상에서도 사실상 제외되었다. 때문에 갈수기에 댐의 수위가 낮아져 유적이 노출될 때에도 방치됨으로 말미암아 개인 및 단체의 사적인 접근이 전혀 통제되지 못하였다. 대규모 탁본, 심지어 동사잉크를 이용한 특정형상의 탁본, 합성수지류를 이용한 틀 뜨기 등이 수시로 이루어져 1990년대 중반기에는 단 1~2년만에 암각의 면이 극히 얇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최근에는 기상변동에 따른 잦은 가뭄과 집중호우로 유적의 수몰과 노출이 반복되면서 암각화 유적의 암벽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표면의 박리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 등 유적의 보존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어 내외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지질학 및 암석학 전문가의 유적조사와 평가를 통한 자료 마련 및 유적 보존방안 수

립을 비롯한 유적과 주변환경의 보존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구대 암각화 유적이 맞고 있는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바른 평가와 보존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울산광역시와 울산대박물관은 유적에 대한 엄밀한 실측 및 조사보고서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울산광역시로부터 조사를 의뢰 받은 울산대박물관은 학계 각 분야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 조언을 받으면서 2000년 4월부터 구체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현지 조사 및 후속 작업 8개월만에 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다. 울산이 지니고 있는 두 곳의 국보 암각화 유적 가운데 한 곳이 발견 30여 년만에 정밀한 실측조사 보고서를 내놓아 국내외의 암각화 연구자와 관심 있는 이들에게 유적의 보존 관리 및 재평가, 공동조사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적 가치를 지닌 반구대암각화 유적의 공동 관리자이자 향유자라고 할 수 있는 100만 울산광역시민 모두가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길 일이라고 하겠다. 이제 이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울산이 암각화의 도시, 세계 암각화 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 되도록 암각화 연구센터와 전시관이 건립되는 등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뒤따라기를 기대해 본다. 본 보고서가 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울산광역시 관계자 여러분과 조사작업과 보고서 발간 준비를 겸하느라 1년 가까이 밤낮으로 애써준 김영민 학예사 및 이상목 연구원 이하 학예연구실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이 보고서를 2000년 말미를 장식하는 의미 있는 글 묶음의 하나로 시민과 학계에 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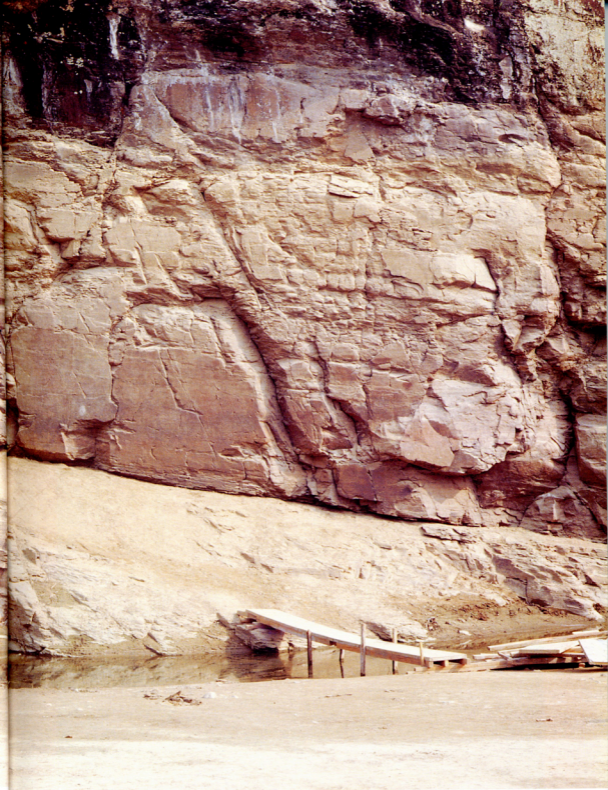
2000년 12월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전 호 태

目 次

* 원색사진	
I. 머리말	1
II. 조사경과	4
III. 유적의 주변환경과 현황	7
* 반구대암각화 위치도(1/50,000)	10
* 반구대암각화 주변지형도, 1/25,000)	11
IV. 반구대암각화의 지난 연구성과	12
* 반구대암각화 암벽 분류사진	18
* 반구대암각화 전도(1/16)	19
V. 암각화 형상분류	21
1. 형상분류	50
2. 새김법	53
3. 형상분류 내용	55
VI. 考察	63
1. 考古學的 資料로 본 盤龜臺岩刻畫	63
2. 岩刻畫遺蹟의 調査·研究 方法에 대한 檢討	69
VII. 암각화유적의 보존방안	78
VIII. 맺음말	82
* 도판자료	87





1. 반구대 암각화 유적 전경



2. 반구대 암각화 근경 주면(上)과 탁본(下)



3. 반구대 암각화 A·B면(上)과 C면(下)

I. 머리말

국보285호인 蔚山 盤龜臺岩刻畫는 1971년 동국대학교 불적조사단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암각화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는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234-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천전리에서 사연리로 흐르는 대곡천변의 깎아 지른 듯한 절벽에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는 인접한 국보 147호 川前里 靑石와 함께 암벽에 조각된 암각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유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971년이지만 1984년이 되어서야 종합적인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이후 비교적 활발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1995년 6월 23일 드디어 국보285호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발견 당시 반구대암각화는 하류에 위치한 사연댐의 담수량에 따라 물 위로 드러났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상황이었다. 1965년 12월 울산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사연댐은 상류에 위치한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에 치명적인 악조건을 제공하였다. 반구대암각화는 알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져 왔으나 뜻밖의 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급속도로 훼손되기 시작했다. 매년 한번씩 침수를 반복하면서 암벽의 표면은 계속적으로 탈락되기 시작하였고 암면의 전체에 커다란 균열이 발생했으며, 표면은 점차로 닳아 암각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보로 지정되기 이전까지 공공연히 자행된 무분별한 탁본은 암면을 심하게 훼손시켰다. 또한 전체 암벽에 수지를 사용하여 주형을 만들면서 수지가 벽면의 곳곳에 고착되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한편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암각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주말이면 관람객이 줄을 이었고, 또 각 대학의 답사과정에 포함되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람인파의 증가로 인하여 부작용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관람을 위한 시설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채 관람객의 출입이 잦아지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소가 들어서면서 주변경관과 환경이 급속히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암각화에 접근하여 이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급년부터 울산시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주변을 관리하게 하였다. 하지만 반구대암각화의 보존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암각화가 담수되면서부터 암벽이 닳고, 유실되는 등 암각화 자체의 존립문제가 위태로운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반구대암각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술조사는 거의 전무하여 1971년 발견이후 3차례에 걸친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이후 정

식으로 조사된 예가 없다. 현장조사를 기초로 한 정석보고서가 1984년 발간(문명대, 1984)된 이후 현지조사는 연구자별로 실시한 간이조사가 대부분이었고, 반구대암각화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도면을 위주로 한 연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김원룡, 1980), 인류학(김연규, 1983), 선사미술(장석호, 1986), 지질학(황상일·윤순옥, 1995), 민속학(임장혁, 1991)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시도되었다. 이러한 학계의 관심은 암각화가 가지는 학술적 중요성을 대신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국내외적인 관심 속에 진전된 연구성과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기초적 자료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1971년에 조사된 도면에 근거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도면의 보완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암각형상에 대한 해석에서 많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연구형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연구대상인 반구대암각화가 연중 대부분, 물 속에 잠겨져 있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1990년대 중엽 암각화연구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반구대암각화가 국보로 지정되면서 암각화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게된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초자료의 채록이나 관찰에 있어서 항상 제한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실측조사를 기획하였고, 울산광역시와 예산지원하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암각화의 발견 및 조사보고 이후 이룬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암각화 유적의 현상 변경 및 현재의 보존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암각화유적의 현상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보고, 그리고 기초자료의 확보와 보존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번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된 암각 그림의 수는 총 296점이며 인물상이 14점, 동물상이 193점, 도구상이 11점, 그리고 정확한 형상의 파악이 곤란한 그림이 78점이다. 조사과정에서 다수의 새로운 암각그림이 확인되었고, 기존의 그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것들도 추가되어, 기초자료의 재정립이라는 나름대로의 목적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짧은 조사일정 때문에 원활하고 심도깊은 결과를 얻는데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암각화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와 추후 이 일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한 하나의 단초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여야 할 것 같다. 본 조사과정에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울산광역시의 담당자와 주위의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한다.

특히 이번 조사의 자문위원과 조사위원으로 기꺼이 조사에 참가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현장조사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지도와 자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사과정

을 보기 위해 현장을 답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님과 졸업생들도 현장을 찾아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조사에 큰 힘이 되었다.

이번 반구대암각화조사의 조사단 구성은 아래와 같다.

- 가. 책임조사원 : 전 호 태(울산대학교 박물관장)
- 나. 자문위원 : 한 병 삼(문화재위원, 국립중앙박물관장)
김 정 배(한국암각학회회장, 고려대 총장)
정 영 호(문화재위원, 한국교원대 교수)
강 우 방(당시 국립경주박물관장, 현 이화여대 교수)
- 다. 조사위원 : 김 주 용(한국자원연구소 지질연구부장)
최 기 흥(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라. 조사원 : 김 영 민(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이 상 목(울산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박사과정)
- 마. 조사보조원 : 김 현 철(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이 경 인(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남 연 의(울산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권 지 영(울산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최 승 희(울산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 바. 보조원 : 신 준 심(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3년)
김 광 수(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3년)
김 영 복(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3년)
강 정 미(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2년)
김 나 영(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2년)
이 보 경(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2년)
이 혜 정(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2년)

현지조사과정에서 탁본은 김현철과 남연의가 주축이 되어 행하였으며, 실측조사는 이경인과 권지영, 최승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장의 사진촬영은 김현철과 권지영이 주로 하였다. 실측도면의 정리는 이경인이, 제도는 남연의가 주로 하였으며, 신준심, 김광수, 김영복이 보조하였다. 사진의 정리는 권지영과 강정미, 김나영, 이보경, 이혜정, 한경운이 보조하였다. 보고서의 원고는 전호태, 김영민과 이상목이 분담하여 집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호태가 교열하였다.

II. 조사경과

현지조사는 금년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또 추가로 11월에 현장을 답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와 자료분석, 보고서 발간 등의 작업기간이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변암면에 대한 폭넓은 조사보다 반구대암각화를 위주로 한 국지적 조사에 만족하여야 했다.

현지조사가 시작된 4월은 가뭄이 극심하여 반구대암각화 전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 당시 대곡천의 수위는 암각화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4.5m 이상 낮아 암각화 앞으로 3, 4m정도 길이의 다리를 설치하여 접근하였다. 암각화에 접근한 후,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전체 암면에 물이끼와 진흙이 부착되어 암각의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되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암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대를 설치하고, 암면에 부착된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세척하는 것부터 현지조사는 시작되었다.

암면에 대한 세척작업은 거의 하루 온종일이 소요되었으며, 다음날부터 암면전체에 대한 탁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탁본은 전체적인 암각의 형상을 파악하고, 기존 도면과 비교 검토하여 실측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암면의 경우 작업대를 사용하여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주변의 암면은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실질적인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접근이 가능한 곳까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을 시도하여 탁본을 실시하였다.

탁본작업은 주로 새벽에 시작하여 오전 10시경에 마무리하였는데, 대기가 건조하여 화선지를 붙이면 곧바로 부착된 화선지가 떨어져 버려 대기 중의 습도가 높은 새벽이 아니면 화선지를 암벽에 붙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해가 뜨기 시작하면 주변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차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탁본조사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탁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새벽 4시경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오전에 탁본을 마치고 오후에는 주로 암벽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여러 차례의 촬영을 통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암면의 상태가 사진촬영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시간대에 주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 비교적 암각의



사진1. 반구대암각화(盤島臺岩刻畫) 탁본광경

깊이가 알아 사견효과가 적은 암각은 탁본한 후 탁본된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 윤곽을 파악하였다.

탁본작업은 약 2주간에 걸쳐서 계속되었으며, 이를 마치고 곧바로 암벽 전체에 대한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측조사는 암벽 전체에 실(方眼絲)을 이용하여 50cm단위로 방안을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방안은 목재 작업대를 이용하고 필요시 다시 각목을 설치하고 못을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암각의 전면이 넓어 조사원 4명이 각면을 분담하여 동시에 실측을 시작하였는데 실측은 암각면에 대한 쏘오기가 된 면 전체를 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기존의 조사보고서는 주로 전체윤곽에 대한 형태를 파악하고 형상을 묘사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흔의 표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실측이라기 보다는 형상에 대한 모사도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보완으로 주변의 각흔을 포함한 전체 형상을 표현하였다.

실측조사는 약 10일 가량이 소요되었다. 실측조사과정은 형상의 파악이 용이한 암각은 별 무리가 없었으나, 형상이 불분명하거나 전체적인 윤곽이 희미한 암각의 경우 대단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다소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리고 설치된 방안사가 아침이 되면 습기에 의해 처짐현상이 생겨, 매일



사진2. 반구대암각화 실측장면

아침 실측을 시작하기 전에 방안을 다시 설치하고 보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 실측도는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1/2의 축척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실내에서 다시 축소비율을 조정하여 적당한 크기로 완성하기로 했다.

현장조사의 마지막 단계로 모업체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영상으로 암각화를 기록하고자 암면전체에 대한 3D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디지털 촬영은 암벽을 가로, 세로 30cm 크기로 분할하여 촬영하고 이를 다시 컴퓨터상에서 조합하는 방



사진3. 반구대 암각화 3D카메라 촬영장면

식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일부 압박을 완화한 후 형상을 분석해 본 결과 암각화의 깊이가 깊지 않아 입체적인 효과가 기대치에 미달하였다. 그리고 개별 사진들을 조합해 본 결과 개별 사진들의 명암차이가 커 실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암각화 자체를 입체적인 형상으로 구현하기는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을 조기에 종결하였다.

한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암각화를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의 수가 많아 조사를 진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실측조사는 대상물에 대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과정인데 이곳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은 암각화 앞으로 놓여진 다리를 건너 암각화를 만지려고도 하고, 또 확성기를 통하여 암각화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여 주말이 되면 조사가 거의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암각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작업을 진행하는 조사단 개개인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내부작업에 곧바로 착수하였으나, 전체적인 자료량이 방대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측도면을 정리하여 전체도면을 만들고 이를 축소하여 다시 제도과정을 거쳐 일차적인 도면작성을 완료하였다. 완성된 도면과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새로운 암각들은 사진과 탁본을 비교하면서 형상과약을 시도하였으며, 기존에 보고된 암각들도 형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보다 명확한 형상과약을 시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 정리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스럽게도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국내암각화를 전공하는 이상목이 학위논문작성차 귀국하여 조사단에 합류하였는데 자료의 정리와 분석을 전담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하여 암각화의 채록에 대한 제반지식도 전수 받을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

내부정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확인되기도 하여 조사기간을 다소 연장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1월경이면 물이 점차로 빠지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지를 답사해 보니 암각화의 최정상부까지 물 속에 잠겨 있어 암각화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는데 만족하여야 했다.

III. 암각화의 주변환경과 현황

반구대암각화가 위치하는 곳은 사행성 하천인 대곡리 일원의 대곡천변으로 수백m에 걸쳐 연립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일대는 건너각단이라고 불린다. 상류로 약 2km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국보147호 川前里 古石이 있다. 암각화와 서석이 있는 대곡천은 비교적 깊은 골짜기 지형인데 울산지역의 지형이 대부분 평지에 야트막한 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대단히 특이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겠다. 이곳에 암각화가 남겨져 있는 것은 이곳이 가지는 신비스런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곡리는 본래 경주 외남면의 대곡리와 언양현 중북면 대곡리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언양면 대곡리에 이속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반구대암각화가 위치한 지역은 1965년에 만들어진 사연댐에 의해 마을의 대부분이 수몰되어 남아 있지 않으며, 반구대 주변의 일부마을만이 남아 있다. 수몰된 마을은 대곡리에서 가장 큰마을이었던 큰마실, 건너각단 또는 건너들이라 불리웠던 신리(新里), 서당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서당마실, 종이 만들던 곳이라는 의미의 지동마을 등이다.

반구산의 동쪽 끝에 있는 마치 거북이 모양으로 생긴 곳을 반구대(盤龜臺)라 부른다. 주변의 깎아 지른 듯한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고려충신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가 언양의 요도(蓼島, 지금의 어음리)에 귀양살이 할 때 즐겨 찾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문목공(文穆公) 정승(鄭誦), 문원공(文元公) 이연직(李彦迪)이 이곳을 회유했다 하여 숙종38년(1712) 이들 세 선생을 추모하고 높은 뜻을 이어받고자 서원을 세우니 이것이 반계서원(盤溪書院)이다. 반계서원은 영조4년(1728)에 화재로 소실되어 이듬해 다시 세워졌으며 고종8년(1871) 서원례지령에 의해 철폐되었다. 이후 고종 광무4년(1900)에 이 지역 유생들이 세 선생을 추모하고자 유희비와 비각을 세워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 반구대의 북쪽 건너편에는 삼현재(三賢齋), 집청정(集淸亭), 모은정(慕隱亭)이 남아 있다.

서원마실의 북쪽 해발 265m의 비교적 가파른 산의 중턱 수풀속에 10m높이의 절벽이 있으며 여기에는 매몰되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동굴이 있다. 이와 같은 동굴은 선사시대 암송유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반구대암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짓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통하여 전모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이곳에는 최근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침구가 놓여져 있는 등 보존상태는 극히 열악한 상태이다. 추후 이곳에 대한 조사 계획도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활범위, 즉 일일생활권은 반경 20km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기서 20km는

인간이 하루에 도보로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기는 하나, 실질적인 생활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평지가 아닌 곳에서의 생활범위는 자연지형의 영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다소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암각화의 주변지형과 환경에 따라 암각화의 생성집단의 주거지역이 공간적으로 결정되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암각화를 단순히 당시 생활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일 생활권에 묶어 놓고 볼 수는 없다. 즉 종교적인 산물로서 암각화를 본다면 당시 생활공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하여도 별다른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단은 암각화 조성집단의 분포권을 다소 넓은 반경 20km내외의 넓은 지역으로 보고자 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대상지역은 울산의 전지역과 지금의 경주까지가 해당범위에 포함된다.

반구대암각화와 관련되는 지역이 대단히 넓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변지역에 대한 간략한 자연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울산지역은 동남해에 인하여 있는 지역으로 편남성 쓰시마해류와 제주해류 등 난류의 영향이 강하며 동해의 한류가 접하는 곳으로 고온 습윤한 난대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기온은 대체로 온화한 편이며, 연 평균 강수량은 1,300mm 내외로 다우지역에 속하며, 태풍의 영향을 가끔 받는 지역이다. 연평균 기온은 14도이며, 1월 평균기온 1.9도, 8월 평균기온은 25.5도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이며, 월평균 강수량의 최다값은 8월의 273.3mm, 최소는 1월의 39.4mm를 나타낸다.

지형적 환경을 보면 암각화의 서쪽에서 N20° E방향으로 종행하는 연안단층을 경계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이 분포암석에 따라 산계의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계곡들은 대부분 U자형 계곡을 형성하고 있어 만장년기의 지형을 보여준다. 동부 지역은 퇴적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몇몇 곳에 화성암류가 관입분포하고 있다. 대체로 낮은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연화산(533m), 국수봉(610m), 무학산(344m), 문수산(599m) 등이 주봉을 이루며, 화강암류의 분포지역은 대부분 소봉지를 형성하고 있다.

서부지역은 고현산(1032m), 가지산(1239m), 능동산(981m), 간월산(1083m), 신불산(533m) 등이 고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안산암질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곡 등 저지대는 화강암류가 분포한다.

수계는 동쪽으로 흘러 울산만으로 유입되는 태화강의 상류는 부분적으로 사형하천을 이루며, 퇴적암류지역에서 Subdendritic수계를 화성암류지역에서 Subparallel수계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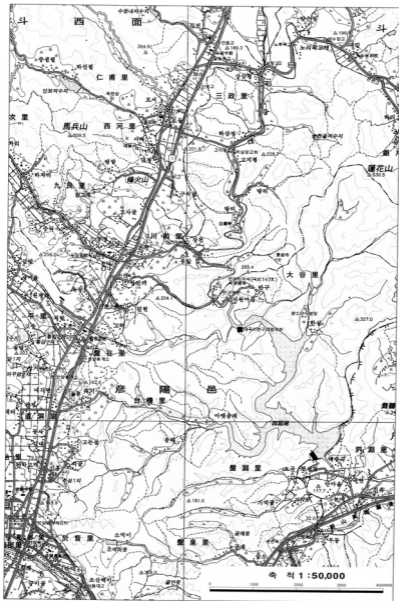
두서면 일대에서 발원하여 사연호를 거쳐 태화강과 합류하는 대곡천, 상북면일대 가지산목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남천, 삼남면일대에서 북서쪽으로 흘러 태화강과 합류하는 축성천과 그 외의 소지류들이 울산지역의 주요 수계를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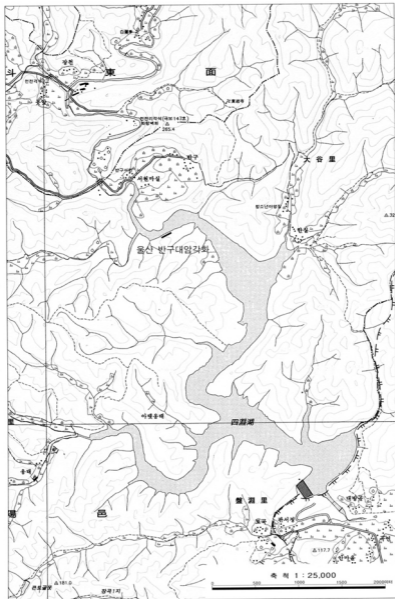
지질은 경상계 신라통의 퇴적암류(대구층)와 이를 관입 또는 분출한 화강암류, 상기 신라통의

제 암층을 관입하여 형성된 불국사동의 화성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최하부층인 대구층은 언양을 지나는 언양단층의 동부일원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하부와 상부가 암상을 달리한다.

하부는 암록색, 녹회색 및 암회색의 사암, 실트스톤, 사질 실트스톤, 사질세일 및 세일이 우세하다. 대구권변에 해당하는 하부층은 자색의 사질실트스톤, 실트스톤, 사질세일, 세일 등이 우세하고, 녹회색 내지 암회색 및 암녹회색의 사암, 사질실트스톤, 실트스톤, 사질세일 및 세일 등과 호층을 이루고 있으며 담회색의 이암이 박층으로 협재된다. 언양단층 서부를 점하고 있는 화성암류는 경상계 신라통의 안산암절암, 석영안산암류 및 반암류 등이 대부분이며 상기의 퇴적암류와 화산암류를 관입한 불국사동의 화성암류로 구성된다. 불국사동의 화성암류는 주로 화강암(언양 화강암, 혹은 운모 화강암)이며 화강섬록암, 반암류 및 맥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의 기반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제4기의 충적층은 자갈, 모래, 점토 등으로 구성되며, 지류들의 연변부를 따라 분포한다.





도면2. 반구대암각화 주변지형도(1:25,000)

IV. 반구대암각화의 지난 연구성과

국내에서 암각화의 존재가 알려진 후 지난 30여 년간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비교적 많은 논문과 견해가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암각화에 비해 유독 반구대에 연구가 집중되어 왔는데 이는 우리나라 선사유적(先史遺蹟)에서 반구대가 차지하는 큰 비중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유적에 대한 주요 연구는 제작 연대, 새김법, 유적의 성격과 그림 해석 등의 주제가 많이 다뤄졌으며 이 같은 내용은 다른 선사유적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암각화의 경우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등과 달리 절대연대(date absolute)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관련 동반유물(同伴遺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유적의 특성상 그 해답을 얻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연히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는 데 이때 연구 과정에서의 방법론적 타당성과 과학적인 데이터(data)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연구내용과 성과를 개괄적(概括的)으로 정리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 학계에 최초 보고서를 낸 문명대(1973)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한 반구대에 대한 절대연대(date absolute) 추정은 어렵다고 보고 암면내 덧그림(superposition)을 통한 형상간의 상대적연대(date relative)와 다른 나라 암각화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작연대의 단서를 잡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노르웨이와 시베리아 아무르강(Amur) 유역의 그림을 비교한 후 상한을 신석기 중기까지 소급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암면에 표현된 형상들은 5가지 새김법으로 세분되며 이를 크게 모두 폐기와 선 새기기로 나눴다. 이 같은 견해는 1984년 유적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신석기와 청동기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유체(動物遺體)와 비교 분석을 예로 들어새김법에 따라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1975년 황용훈은 당시까지 국내에 발견된 대부분의 암각화를 전체적으로 묶어 이에 대한 새김법상의 형식 분류를 시도하고 있는데 반구대는 이중 제1기법인 쪼아 파기에 해당하며 형식분류상 세 가지 기본 형식과 6개의 세분 형식으로 다시 나누었다. 이와 같은 새김법에 대한 형식분류 시도와 이를 통한 암각화 유적간의 상대적 연대추정은 이후 임세권(1994), 장명수(1996)에게서도 볼 수 있다.

한편 김원봉(1980)은 암면 형상중 중국 漢代의 무기류와 비슷한 형상이 있다고 보고 제작시기

를 철기시대 이후로 암각 형상도 철기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으며, 1983년에는 다시 일본 弥生時代에서도 유사한 무기가 있음을 들어 다시 청동기 후기까지 상한연대(上限年代)를 올려 보았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암각화에 대해 고고학자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과 주제로 접근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국문학자인 김열규(1983)는 암각화에 새겨진 형상들을 신화학적으로 해석을 하였으며 정동찬(1986)은 고래잡이와 관련한 풍속과 현지조사를 통한 반구대 암각화와 민족지(ethnographic)의 비교연구를 시도했으며 1988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 유적이 수렵어로집단의 사냥과 관련된 교육과 의식을 행하던 장소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또 1996년에는 암면의 고래형상과 현지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암면내에 새겨진 고래의 종류와 생태에 대한 해석을 하는 등 참신한 견해를 많이 발표하였다.

90년대에 들어 유적의 수적 증가와 학계내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암각화 연구가 본격화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임강혁(1991)은 암각화에 등장하는 형상에 대한 민족학적 의미로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임세권(1994)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암각화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암각 형상과 디그림에 대한 서술과 새김법과 연대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다음해 황상일과 윤순옥(1995)은 지질학적인 조사를 통해 울산만 후빙기 해진해퇴(海進海退)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생활상과 제작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최초의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역사민속학회에서 암각화를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우리나라 암각화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시각으로 암각화 연구를 시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 반구대 유적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한 연구자는 송화섭, 장명수, 전호태 등이 있다. 또 지난해(1999)에 울산대학교에서 울산 암각화에 대한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한차례 열린 바 있다. 이때 반구대 유적에 대해 장명수(1999)는 형상 분류에 따라 어로신앙-수렵신앙-백사신앙적 요소이라 종교학적인 해설과 김권구(1999)의 암각화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편년에 대한 견해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암각화에 대한 연구에 관련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암각화학회(發足)되어 한차례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새천년에 들어서도 개별 연구에서 종합연구의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8월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한 암각화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학술대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암각화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추세를 간추려보면 발견의 초

장기인 70년대는 주로 제작연대와 기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80년대 들어서부터 고고학이외의 영역에서 새로운 접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4년에 출간된 반구대 종합조사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점차 이들 개별 연구성과를 종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역사민속학회(1996), 울산대학교(1999), 울산광역시(2000)에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30여 년 간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암각화 주변의 지연생태와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암각화가 결국 그 곳에 거주했던 당시 집단의 혼적인 이상, 연관 매장문화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한 제작 연대와 제작 집단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는 암각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이와 함께 지질학,古생물학, 기후학, 인류학, 고고학 등 학제간의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연구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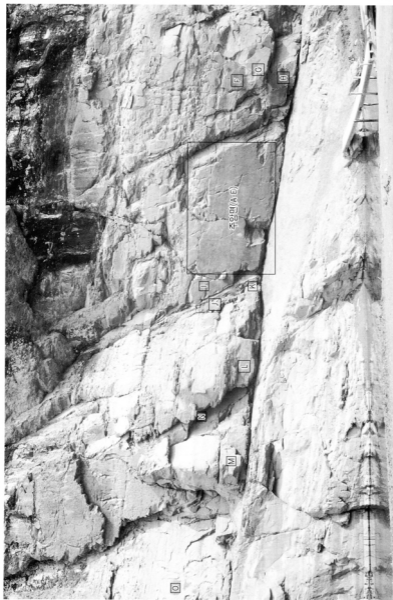
연도	발표자	발표논문	주요내용	제작년대	제작과 표현기법	연구대상작화의 성격	의의
1973	문병대	『조선의 신사시대 양백자 제작기술, 권대수정』, 문후재 7	조선 천년, 연구대 양자화의 발전경위와 제작기술, 권대수정	신석기 중기	모두백기와 신보기로 분류-라위 5가지로 세분	북유집과 시베리아의 신석기 시대에 속(Hunting art)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	연구대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
1975	황용훈	『원림도 신사시대 양백자 제작기술과 형식분류』, 고고미술학 127	연구대 양자화를 유럽, 중앙아시아 등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새김법에 대한 형식 분류를 시도	신석기 말기 - 청동기 전기	포아와기(제기법)에 해당하며 형식분류상 새 가지 기준 형식 6개의 세분 형식으로 나눔	제작기법상 가장 오래된 양자기법이며 수평사회의 소산물로 봄	제작과 표현기법에 대한 형식분류 시도
1980	김원환	『울진연구대 양자화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권고고학보 9	양자화의 형상과 출토유물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작 연대를 추정, 연구대에서 중국 문화와의 유사한 형상을 비교	청기시대 이후	-	-	양자 형상과 유물의 비교
1983	김영규	『한국문화사-그 형상과 의미』, 탐구당	양자에 새겨진 도형들을 시각적 언어로 이해하고 이를 신화적으로 해석	-	-	시베리아 사머나즘과의 관련	신화학적 해석
1983	김원환	『예술과 신앙』, 민중사 13	양자화의 특정 형상에 대한 유물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발견된다고 보고 칠면조 등의 상징을 상상	청동기 후기 - 원삼국시대 초기	-	양자화 유적지가 풍족보문과 직접 관련 성지	-
1984	황수영 문명대	『연구대』, 동국대학교	유적의 발전경위, 조사과정, 양자의 구조와 사진, 양본 도판, 동물 형상을 동물분류학상에 의거해 분류 해설	모두보기와 신보기 - 라위 세부 분류	양자화와 양자화로 구분	수평이로인물이 사냥과 관련된 시문인양자기법에 대한 설명	최초의 종합 보고서
1984	임세권	『우리나라 신사시대의 연구』, 문후재 11	양자에 새겨진 형상들을 제작기법 별로 나누고 이들과의 상호관계를 고찰	신석기	신화화와 양자화로 구분	양자는 어로집단이 신라는 신아집 단위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 함	양자기법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1986	정동진	『우리나라 신사시대 연구』, 민중사 14	고래잡이와 관련된 문헌(민족지)과 현지 조사를 토대로 비교 연구 하위논문	신석기	신그림과 평면그림	사냥대상에 대한 지식과 사냥방법 문해의 법칙과 관련 있다고 봄	민족지(Ethnography)와 비교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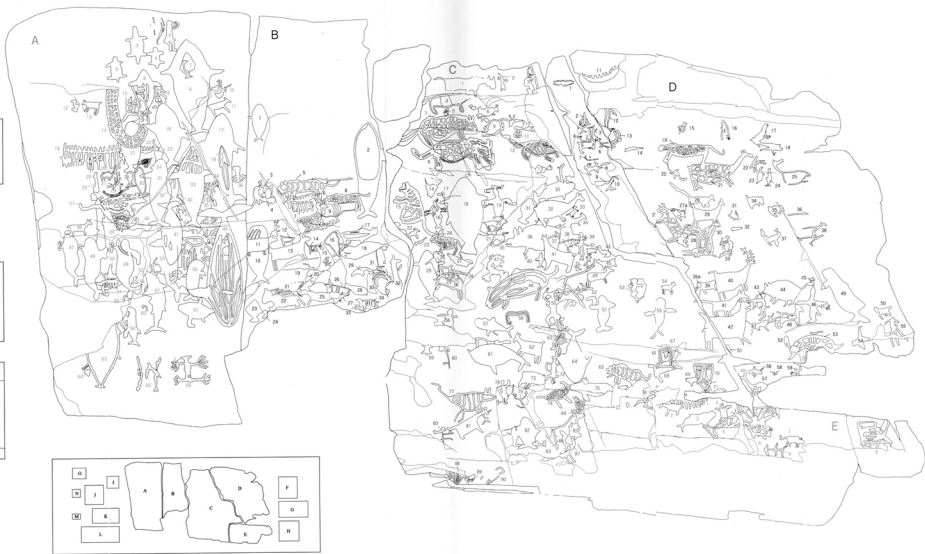
연도	발표자	발표논문	주요내용	제작연대	제작과 표현기법	반구대암각화의 성격	의의
1988	정동원	『솔주 대각의 선사시대 그림 연구』, 고고학 조총	암각의 벽면색과 경수의 분포, 민족지와 원저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	신석기시대 후기 이전	평면그림과 선그림으로 구분	사람과 관련된 교육과 의식을 행하는 장소	-
1991	임강희	『대각리 암벽조각의 민속 암각화에 등장하는 형상에 대한 민속학적 분석 고찰』, 한국민속학 24	형상에 대한 민속학에 대한 연구(의의)해석 시도	청동기시대	-	장기적인 의례(신년)와 관련이 있으며 제사와 관련을 가진 형상을 의 고찰	민속학적 측면에서 의 고찰
1994	임세연	『한국선사시대 암각화의 성격』,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본 암각화 연구에 대한 정리와 해석	청동기시대	면각과 선각-화화 5가지로 세분	제의 자체와 관련된 사항을 세밀, 수렵예술	한국 암각화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1995	황상일, 윤순숙	『반구대 암각화와 추방기 후기 용산원의 환경변화』, 제4기학회지 1	용산반 추방기 해진 해퇴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과 제작연대를 추정	6000-5000BP	기본연구자들의 면각과 선각의 구분을 받아들임	암각화에 해외 현장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어로-수렵)가 반영된 것으로 봄	최초의 자연과학적 접근
1996	송화삼	『한국 암각화의 신앙의례, 벽여승공(암각화)에 대한 종교(신앙)적인 해석을 시도』	현존도내에 출토된 선사시대 지남석승공과 벽여승공(암각화)에 대한 종교(신앙)적인 해석을 시도	신석기시대 중기	-	수렵·어로민들의 세속세계와 신미적 표현양식을 보여주는 신시미술, 수호신의 신앙조각	종교적인 대상으로서의 암각화
1996	정동원	『살아있는 신화 복귀그림』, 복안	원저조사자료와 민족지자료를 바탕으로한 비교분석, 고래 형상에 대한 풍류와 생태에 대한 분석	신석기 시대	평면그림과 선그림	수렵·어로 대상의 사냥감에 대한 표현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서도 사용	일반 형상(고래)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을 시도
1996	장영수	『한국암각화의 권인』, 한국학사민속학회	새김새와 문화적 성격에 관한 시도	청동기시대	면묘새김과 선묘새김	장물상암각화, 어로와 수렵에 대한 특별한 기술용 가진 것은 일단이 그들의 경제활동이 풍성해지기를 기원해서 새긴 것으로 봄	새김법에 의한 종합적인 권인 시도
1996	전오해	『솔주 대각리·원진리 암각화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의 연구 과제』, 한국학사민속학회	암각화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의 연구 과제	신석기 후기 - 청동기 중기	면각과 선각	특정한 시기, 특정한 영역에 살던 주민들이 남긴 생활유적의 일부	암각화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고석화, 석기질, 생태 등)의 필요성을 강조

연도	발표자	발표논문	주요내용	제작연대	제작과 표현기법	반구대암각화의 성격	의의
1999	김관구	『대국의 반구대 암각화의 이해와 연구방향에 대하여』, 울산연구 1	암각화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편년에 대한 소개	청동기후기 - 초기철기시대	민세집과 신세집, 중간단계(민도원기법)	논경의 비문이 커져서 시대적 배경에서 어로수렵 경제집단의 사회적 진략에 의한 의례	암각화 연구이론에 대한 검토
1999	장명수	『울산 대국리 암각화에 나타난 신앙의식』, 울산연구 1	형상의 내용에 따라 어로신앙, 수렵신앙, 댕시신앙 및 요소로 구분, 이를 종교적으로 해석	전해적인 기포모양 동동기시대로 거슬러오름	민세집과 신세집	일민이 형상들을 통해 어로수렵과 같은 생산양식에서 가족 집단과 조부나 같은 댕시신앙의 신앙양식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음 지적	중복그림에 의한 상징적 집단에 대한 신의 변화의 가능성 있음 지적
2000	장명수	『한국 암각화의 유형과 특성』,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내에서 발견된 암각화에 대한 유형분류와 성격에 대한 고찰	-	민세집과 신세집	수렵과 어로의 특징을 기원한 국내 유적에 대한 유적유형 분류	국내 유적에 대한 유형 분류

<표 1.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

사진4. 빈구대암각화 분류사진





0 20 40 60 80 100cm

도면3. 반구대암각화 실측도 (1:16)

V. 암각화 형상 분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각화' 또는 '바위그림'은 글자 그대로 '바위 위에 다양한 기술로 그려진 모든 그림'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세계 거의 모든 지역과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예술 표현이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에는 매우 부정확한 면도 있는데, 즉 바위에 그려진 유럽의 기독교나 동양의 불교의 마애불(磨崖佛)과 같은 종교적 조각상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반면 바위에 나타나는 매우 부정확한 각흔(刻痕)이나 특정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암면에 나타나는 선이나 점들과 같은 모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거의 모든 흔적을 연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암각화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은 암각화를 '종교적 제의에서 사용되는 상징 언어(langage symbolique)이고 그림의 이미지를 통해 신과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Lumely, 1994)이라고 보는가 하면 '언어는 존재하지만 글이 존재하지 않은 사회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그림 언어(langage visuelle)'(Anati, 1989)나 '종교적 관념이나 신화에 대한 기호(signe)'(Abélanet, 1978) 등으로 보고 있고 결국 공통적으로 '암각화가 선사시대 그리고 전(前)문자 사회의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일종의 표현 수단'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암각화는 문자가 존재하기 이전 사회의 일종의 기록 수단으로 보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형상이외에도 많은 흔적이나 기호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우 사실적인 형상들이 그려져 있는 반구대 암각화에도 당시 제작인들의 종교 관념, 생활상, 그리고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그림으로 보고 구체적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많은 형상들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를 분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래서 반구대 발견 당시의 조사보고서(문명대, 1984)에 의하면 암면에서 발견된 형상은 191점으로 파악되었고 비교적 최근 연구(장명수, 1998)에서는 217점으로 조사된데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80여 점에 가까운 그림들이 새롭게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조사기간 내내 암면이 거의 대부분 침수되었던 상황에서 실제 조사와 분석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고 유형 형상도 발견 당시에 비해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에 있음을 감안하면 발견 당시의 조사자료와 재조사 과정을 거친다면 더 많은 그림들이 추가로 발견될 것으로 기대해보면서 조사된 형상에 대한 분류 결과와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대곡리암각화 그림 분류표〉

유형	세부유형	A면	B면	C면	D면	E면	F면	G면	H면	I면	J면	K면	L면	M면	N면	O면	합계	총합계
인물상	全身	2	1	6	2					1							12	14
	顔面			2													2	
동물상	우제류	5	5	20	20	2		3	1						1		57	193
	식육류	3	5	8	5	1	1						1	1		1	26	
	고래류	23	7	15	5	2	2	1			1	1	1				58	
	가축류	3		2		1											6	
	鳥類			2	1												3	
	魚類	1	1														2	
도구상	미상	3	6	10	12		1	2	2				5				41	5
	베	2		1	1		1										5	
	용다리	1	1														2	
	그물	1								1							2	
	武器類	1															1	
미상	기타	1															1	24
	종류불명	10		8	5	1											24	
합계	형태불명	10	8	16	10	2		2	1			2	3				54	78
	합계	66	34	90	61	9	5	8	4	1	2	3	10	1	1	1	296	

<표3. 반구대암각화 현황표>

번호	유형	세부유형	길이(mm)	높이(mm)
A-1	미상	종류불명	78	182
A-2	인물상	전신상	72	210
A-3	동물상	거북目(Chelonia)	145	298
A-4	동물상	거북目(Chelonia)	120	140
A-5	동물상	거북目(Chelonia)	125	170
A-6	동물상	고래目(Cetacea)	428	605
A-7	동물상	고래目(Cetacea)	111	170
A-8	동물상	고래目(Cetacea)	220	300
A-9	미상	형태불명	88	116
A-10	미상	종류불명	132	128
A-11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68	117
A-12	미상	형태불명	56	84
A-13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22	94
A-14	도구상	그물	270	385
A-15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168	140
A-16	동물상	고래目(Cetacea)	270	440
A-17	동물상	고래目(Cetacea)	314	640
A-18	도구상	무기류	64	306
A-19	도구상	올타리	426	174
A-20	동물상	형태불명	158	62
A-21	동물상	고래目(Cetacea)	140	342
A-22	도구상	매	115	68
A-23	미상	종류불명	55	80
A-24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03	68
A-25	미상	종류불명	40	140
A-26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90	62
A-27	미상	종류불명	123	183
A-28	미상	종류불명	41	96
A-29	도구상	매	172	60
A-30	동물상	고래目(Cetacea)	69	200
A-31	동물상	고래目(Cetacea)	234	447
A-32	동물상	고래目(Cetacea)	94	257
A-33	동물상	고래目(Cetacea)	282	540
A-34	도구상	형태불명	100	123
A-35	동물상	고래目(Cetacea)	115	230
A-36	미상	종류불명	96	105
A-37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441	168
A-38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138	94
A-39	미상	형태불명	80	60
A-40	동물상	고래目(Cetacea)	163	72
A-41	동물상	고래目(Cetacea)	220	420
A-42	미상	형태불명	20	70
A-43	미상	종류불명	50	70
A-44	미상	형태불명	20	58
A-45	동물상	고래目(Cetacea)	467	800
A-46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64	110

A-47	동물상	고래目(Cetacea)	130	358
A-48	동물상	고래目(Cetacea)	185	420
A-49	동물상	고래目(Cetacea)	220	405
A-50	미 상	형태불명	110	110
A-51	동물상	종류미상	178	100
A-52	동물상	고래目(Cetacea)	50	51
A-53	미 상	형태불명	44	98
A-54	동물상	고래目(Cetacea)	150	374
A-55	미 상	형태불명	140	62
A-56	동물상	고래目(Cetacea)	150	274
A-57	동물상	어류	164	412
A-58	미 상	형태불명	8	47
A-59	미 상	형태불명	11	40
A-60	미 상	종류불명	40	48
A-61	동물상	고래目(Cetacea)	210	237
A-62	동물상	고래目(Cetacea)	112	260
A-63	동물상	고래目(Cetacea)	250	425
A-64	미 상	종류불명	44	50
A-65	미 상	종류불명	160	225
A-66	인물상	권신상	240	205

B- 1	동물상	고래目(Cetacea)	140	241
B- 2	동물상	고래目(Cetacea)	212	645
B- 3	인물상	권신상	80	92
B- 4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420	130
B- 5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270	39
B- 6	도구상	올타리	271	132
B- 7	동물상	종류불명	150	53
B- 8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310	136
B- 9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221	150
B-10	동물상	고래目(Cetacea)	140	390
B-11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230	229
B-12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95	70
B-13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495	235
B-14	동물상	종류불명	110	80
B-15	동물상	어류	126	190
B-16	동물상	종류불명	110	170
B-17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280	119
B-18	동물상	고래目(Cetacea)	330	86
B-19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220	170
B-20	미 상	형태불명	50	40
B-21	미 상	형태불명	225	50
B-22	동물상	종류불명	290	150
B-23	동물상	고래目(Cetacea)	110	150
B-24	동물상	고래目(Cetacea)	40	60
B-25	동물상	형태불명	336	104
B-26	미 상	형태불명	170	50

B-27	미 상	형태불명	60	50
B-28	미 상	형태불명	160	60
B-29	동물상	고래目(Cetacea)	150	68
B-30	미 상	형태불명	42	130
B-31	미 상	형태불명	50	120
B-32	미 상	형태불명	111	239
B-33	동물상	형태불명	40	70
B-34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150	82

C- 1	동물상	종류불명	430	140
C- 2	인물상	진신상	70	120
C- 3	미 상	종류불명	90	180
C- 4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320	117
C- 5	미 상	형태불명	34	50
C- 6	도구상	배	210	110
C- 7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540	165
C- 8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580	190
C- 9	동물상	종류불명	285	150
C-10	미 상	종류불명	128	21
C-11	인물상	안면상	51	52
C-12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298	123
C-13	미 상	형태불명	113	55
C-14	미 상	종류불명	111	149
C-15	동물상	안면상	340	280
C-16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146	201
C-17	동물상	형태불명	150	110
C-18	동물상	고래目(Cetacea)	340	520
C-19	동물상	조류	220	222
C-20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64	70
C-21	동물상	형태불명	70	50
C-22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92	71
C-23	미 상	종류불명	90	20
C-24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215	140
C-25	동물상	고래目(Cetacea)	205	355
C-26	동물상	고래目(Cetacea)	110	150
C-27	미 상	종류불명	190	90
C-28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240	130
C-29	동물상	형태불명	210	160
C-30	동물상	고래目(Cetacea)	294	240
C-31	동물상	고래目(Cetacea)	103	170
C-32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327	170
C-33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88	45
C-34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00	87
C-35	미 상	형태불명	100	90
C-36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361	235
C-37	미 상	형태불명	90	60
C-38	동물상	고래目(Cetacea)	50	120

C-39	인물상	전신상	78	160
C-40	동물상	고래目(Cetacea)	58	110
C-41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232	240
C-42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75	46
C-43	동물상	종류불명	100	50
C-44	동물상	고래目(Cetacea)	40	47
C-45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40	80
C-46	미 상	종류불명	45	60
C-47	미 상	형태불명	175	180
C-48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497	250
C-49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220	105
C-50	인물상	전신상	340	300
C-51	동물상	고래目(Cetacea)	180	250
C-52	미 상	형태불명	70	55
C-53	인물상	전신상	120	160
C-54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95	87
C-55	동물상	고래目(Cetacea)	220	261
C-56	동물상	거북目(Chelonia)	130	135
C-57	동물상	고래目(Cetacea)	270	130
C-58	미 상	종류불명	162	89
C-59	동물상	거북目(Chelonia)	70	65
C-60	동물상	형태불명	70	150
C-61	동물상	고래目(Cetacea)	438	200
C-62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208	195
C-63	동물상	종류불명	98	170
C-64	동물상	고래目(Cetacea)	235	378
C-65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300	134
C-66	미 상	종류불명	140	150
C-67	동물상	미 상	30	48
C-68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230	170
C-69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70	50
C-70	인물상	안면상	136	180
C-71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00	80
C-72	인물상	전신상	101	165
C-73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76	116
C-74	동물상	종류불명	210	177
C-75	동물상	고래目(Cetacea)	284	160
C-76	미 상	형태불명	100	50
C-77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450	270
C-78	인물상	전신상	85	160
C-79	미 상	형태불명	104	150
C-80	미 상	형태불명	80	50
C-81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310	140
C-82	동물상	고래目(Cetacea)	140	220
C-83	미 상	형태불명	90	38
C-84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230	220
C-85	미 상	형태불명	110	90
C-86	미 상	형태불명	20	130

C-87	미 상	형태분명	120	200
C-88	미 상	형태분명	112	77
C-89	미 상	형태분명	80	60
C-90	미 상	형태분명	120	115

D- 1	미 상	종류분명	130	39
D- 2	동물상	고래目(Cetacea)	72	131
D- 3	미 상	형태분명	60	90
D- 4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20	41
D- 5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20	76
D- 6	동물상	종류분명	90	62
D- 7	미 상	형태분명	91	32
D- 8	동물상	종류분명	170	75
D- 9	동물상	형태분명	160	48
D-10	동물상	형태미상	71	88
D-11	도구상	배	270	81
D-12	동물상	고래目(Cetacea)	76	152
D-13	미 상	형태분명	80	140
D-14	동물상	종류분명	130	21
D-15	미 상	종류분명	65	80
D-16	미 상	종류분명	60	140
D-17	동물상	종류분명	165	89
D-18	동물상	종류분명	163	55
D-19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435	140
D-20	미 상	형태분명	70	64
D-21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411	232
D-22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90	80
D-23	동물상	고래目(Cetacea)	48	120
D-24	동물상	고래目(Cetacea)	40	121
D-25	동물상	종류분명	241	173
D-26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308	160
D-27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265	135
D-28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80	90
D-29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220	190
D-30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250	220
D-31	미 상	형태분명	55	10
D-32	미 상	형태분명	70	21
D-33	미 상	종류분명	100	148
D-34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20	94
D-35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10	79
D-36	미 상	종류분명	138	8
D-37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30	120
D-38	미 상	형태분명	200	160
D-39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20	90
D-40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311	325
D-41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368	185
D-42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340	310

D-43	인물상	전신상	158	182
D-44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287	163
D-45	미 상	형태불명	50	55
D-46	동물상	조류	215	250
D-47	동물상	종류불명	220	100
D-48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180	140
D-49	동물상	고래류(Cetacea)	150	438
D-50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120	90
D-51	미 상	형태불명	22	60
D-52	미 상	형태불명	30	90
D-53	동물상	식육류(Carnivora)	304	130
D-54	동물상	종류불명	120	160
D-55	인물상	전신상	110	190
D-56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90	70
D-57	동물상	형태불명	170	190
D-58	동물상	형태불명	65	30
D-59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70	60
D-27a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70	84
D-39a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40	60

E- 1	미 상	형태불명	240	65
E- 2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152	73
E- 3	동물상	고래류(Cetacea)	260	100
E- 4	동물상	거북류(Chelononia)	110	122
E- 5	동물상	고래류(Cetacea)	165	490
E- 6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150	84
E- 7	동물상	식육류(Carnivora)	170	74
E- 8	미 상	종류불명	135	83
E- 9	미 상	형태불명	240	190
F- 1	동물상	식육류(Carnivora)	320	174
F- 2	동물상	형태불명	110	45
F- 3	동물상	고래류(Cetacea)	380	140
F- 4	도구상	배	150	32
F- 5	동물상	고래류(Cetacea)	92	104
G- 1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520	400
G- 2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490	362
G- 3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356	310
G- 4	동물상	종류불명	210	106
G- 5	미 상	형태불명	216	34
G- 6	미 상	형태불명	40	70
G- 7	동물상	고래류(Cetacea)	130	200
G- 8	동물상	종류불명	40	88
H- 1	동물상	종류불명	192	100
H- 2	동물상	종류불명	176	84
H- 3	동물상	우제류(Artiodactyla)	332	218
H- 4	미 상	형태불명	114	80
I- 1	인물상	전신상	256	200

J- 1	도구상	그물	321	451
J- 2	동물상	고래目(Cetacea)	185	570
K- 1	동물상	고래目(Cetacea)	150	308
K- 2	미 상	형태미상	104	170
K- 3	미 상	형태미상	282	150
L- 1	동물상	형태미상	260	148
L- 2	동물상	형태미상	120	84
L- 3	동물상	형태미상	330	80
L- 4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176	70
L- 5	동물상	형태미상	76	74
L- 6	동물상	형태미상	84	76
L- 7	미 상	형태미상	48	100
L- 8	동물상	고래目(Cetacea)	50	102
L- 9	미 상	형태미상	264	74
L-10	미 상	형태미상	40	88
M- 1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152	64
N- 1	동물상	우제目(Artiodactyla)	115	75
O- 1	동물상	식육目(Carnivora)	285	120



도면4. 반구대암각화 개별그림 I



동물상(고래목 ①)



A-6



A-16



A-17



A-21



A-30



A-7



A-8



A-33



A-35



A-41



A-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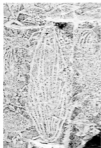
A-32



A-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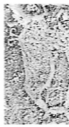
A-49



A-45



A-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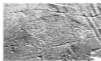
A-47



A-52



A-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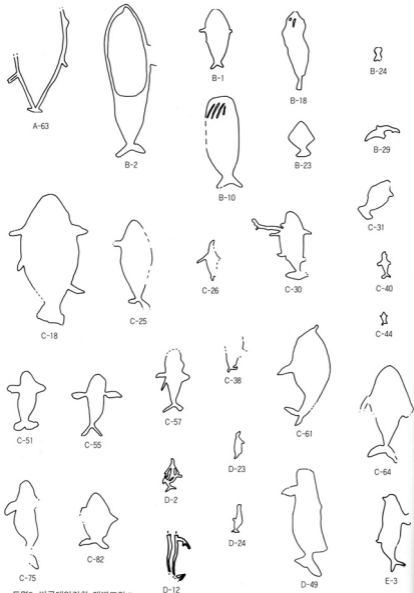
A-61



A-62



A-54



도면5. 반구대암각화 개별그림 II



사진6. 반구대

동물상(고래목 ②)



A-63



B-2



B-1



B-18



B-24



B-10



B-23



B-29



C-18



C-25



C-26



C-30



C-31



C-40



C-44



C-38



C-61



C-64



C-51



C-55



C-57



D-2



D-23



C-75



D-82



D-12



D-24



D-49



E-3

동물상(고래목③) (1/10)



E-5



F-3



G-7



J-2



K-1



F-5



L-8

동물상(어류) (1/10)



A-57



B-15

동물상(거북류) (1/10)



A-3



A-4



A-5



C-56



C-59



E-4

동물상(조류) (1/10)



C-16



C-19



D-46

동물상(고려목 ③)



E-5



F-3



G-7



J-2



K-1



F-5



L-8

동물상(어류목)



A-57



B-15

동물상(거북목)



A-3



A-4



A-5



C-56



C-59



E-4

동물상(조류목)



C-16



C-19



D-46

동물상(우제목①) (1/10)



도면7. 반구대암각화 개별그림 IV

동물상(우제목 ①)



A-11



A-13



A-24



A-26



A-46



B-9



B-13



B-19



C-4



B-12



C-20



C-22



C-32



C-33



B-11



C-34



C-48



C-41



C-36



C-45



C-42



C-49



C-54



C-62



C-68



C-69



C-71



C-73



C-81



C-84



D-22



D-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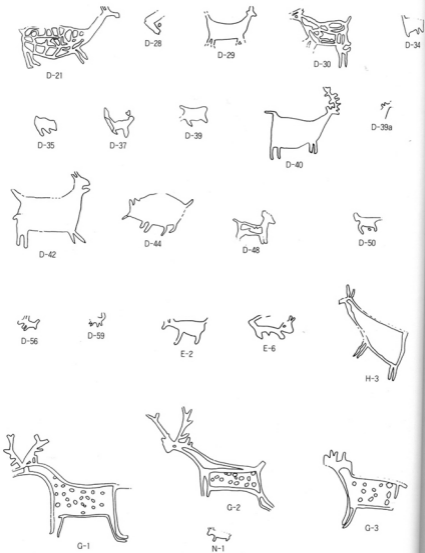


D-5



D-27a

동물상(우제목②) (1/10)



도면8. 반구대암각화 개별그림 V

동물상(우제목 ②)



D-21



D-28



D-29



D-30



D-35



D-37



D-39



D-40



D-34



D-39a



D-42



D-44



D-48



D-50



D-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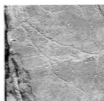
D-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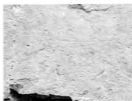
E-2



E-6



H-3



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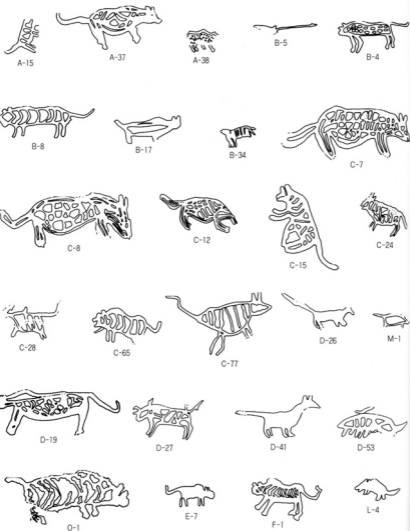
G-1



N-1



G-3



도면9. 반구대암각화 개별그림 ㉞



A-15



C-28



D



사진10. ㉞

동물상(식육목)



A-15



A-37



A-38



B-5



B-4



B-8



B-17



B-34



C-7



C-8



C-12



C-15



C-24



C-28



C-65



C-77



D-26



M-1



D-19



D-27



D-41



D-53



O-1



E-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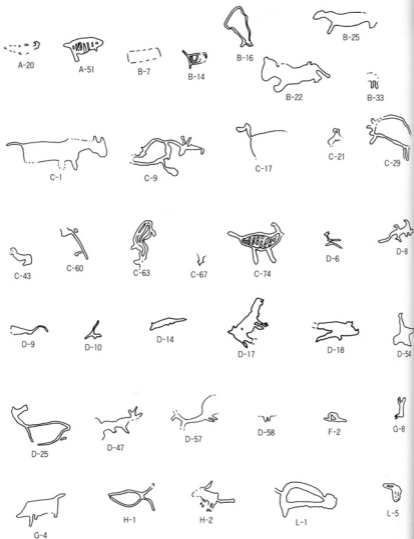


F-1



L-4

사진10. 반구대암각화 개별사진 Ⅱ



도면10. 반구대암각화 개별그림 ㉮

동물상(종류불명 ①)



A-20



A-51



B-7



B-14



B-16



B-25



C-1



C-9



B-22



B-33



C-43



C-17



C-21



C-29



C-60



C-63



C-67



C-74



D-6



D-8



D-9



D-10



D-14



D-17



D-18



D-54



D-25



D-47



D-57



D-58



F-2



G-8



G-4



H-1



H-2



L-1



L-5

동물상(종류불명②) (1/10)



L-2



L-3



L-6

인물상(전신) (1/10)



A-2



A-66



B-3



C-2



C-39



C-50



C-53



C-72



C-78



D-43



D-55



I-1

인물상(안면) (1/10)



C-11



C-70

도구상① (1/10)



A-14



A-18



A-19



A-29



A-22



A-34

도면11. 반구대암각화 개별그림

동물상(종류불명 ②)



L-2



L-3



L-6

인물상(전신)



A-2



A-66



B-3



C-2



C-39



C-50



C-53



C-72



C-78



D-43



D-55



I-1

인물상(안면)



C-11



C-70

도구상 ①



A-14



A-18



A-19



A-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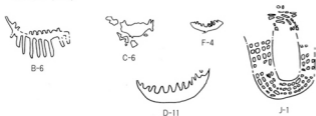


A-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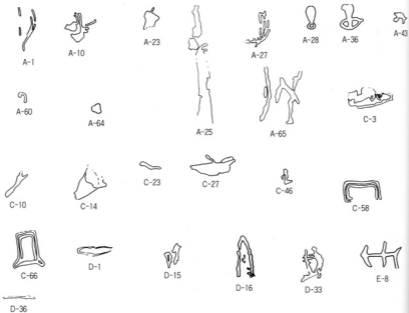


A-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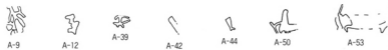
도구상② (1/10)



미상(종류불명) (1/10)



미상(형태불명) (1/10)



도면12. 반구대암각화 개별그림Ⅹ

도구상



미상(종류불명)



A-1



A-60



C-10



C-66

미상(형태불명)



A-9

사진13. 반구대암각화

도구상 ㉔



B-6



F-4



J-1



C-6



D-11

미상(종류불명)



A-1



A-10



A-23



A-25



A-27



A-28



A-36



A-43



A-60



A-64



A-65



C-3



C-10



C-14



C-23



C-27



C-46



C-58



C-66



D-36



D-1



D-15



D-16



D-33



E-8

미상(형태불명 ㉑)



A-9



A-12



A-39



A-42



A-44



A-50



A-53



도면13. 반구대암각화 개별그림 X



미상(형태불명 ②)



A-55



A-58



A-59



B-20



B-21



B-26



B-27



B-28



B-30



B-31



B-32



C-5



C-13



C-35



C-37



C-47



C-52



C-76



C-79



C-80



C-83



C-85



C-86



C-87



C-88



C-89



C-90



D-3



D-7



D-13



D-20



D-31



D-32



D-38



D-51



D-45



D-52



E-1



E-9



G-5



G-6



K-2



K-3



L-7



L-9



L-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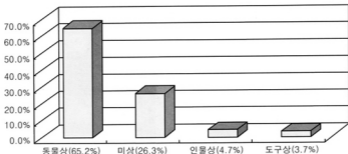


H-4

사진14. 반구대암각화 개별사진 X

1. 형상 분류(Typologic)

암면에서 확인된 개별 형상은 외형을 기준으로 상호간의 유사관계를 고려하여 작은 단위로 묶고, 다시 보다 큰 단위로 묶는 상황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동물 형상의 경우, 외형적인 특징에 주로 근거하는 인위분류(artificial classification)방식을 바탕으로 먼저 종, 혹은 속별로 묶은 다음, 카나 목과 같은 상위 분류단위로 묶어 나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차 분류된 형상은 다시 인물상, 동물상, 도구상,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미상(未象) 등 크게 4가지 대 유형으로 나누어 묶었다. 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총 개체 수 대비 비중이 65.2%에 이르는 동물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상이 26.3%, 인물상이 4.7%, 그 외 배, 그물 등 도구상이 3.7%를 차지하였다. 이를 알기 쉽게 도표로 정리하면 (표)와 같다.



<반구대 암각화 유형별 분포도>

1) 인물상(Anthropomorphes)

실측조사 결과 반구대 암각화 유적에서는 모두 14점의 사람 형상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12점이 측면으로 새겨진 전신상이며, 나머지 2점이 얼굴 부분만이 표현된 안면상이다. 전신상 가운데 남성의 성기로 여겨지는 부분이 발견되는 것이 4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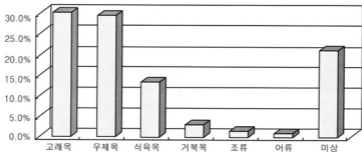
눈길을 모으는 사례로는 두 손을 얼굴 부근으로 올리고 두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있는 A-2, 다른 동물 형상과 함께 새겨진 B-3, C-2, C-72, D-43을 들 수 있다. A-2는 고래를 부르는, 혹은 신에게 고래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주술사로 해석되는 존재이다. 기존의 보고도면들과 비교할 때, 성기로 해석되는 물줄기의 끝 부분이 그리 두텁지 않다. D-43은 맞은 편에 보이는 사슴류의 짐승들 D-40, 41, 42을 향해 활과 유사한 도구를 들이대는 듯한 자세이다. 사슴들을 활로 쏘아 잡는 실제의 사냥 장면, 혹은 이미 있었던 상황을 재현한 그림의 일부로 이해된다. 이 장면과 관련하여 C-50의 인물을 나팔을 부는 물이꾼으로, C-78은 짐승, D-43은 활을 든 사냥꾼으로 해석하면서 이

인대의 짐승들을 몰아 사냥하는 모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장명수, 1997) 그러나 설편작업 결과 C-78의 경우, 도구를 들고 있는지, 들고 있다면 어떤 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재고가 요청된다.

인물의 전신상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린 채 서 있는 자세의 A-66이다. 사지 끝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표현된 이러한 사람 형상의 암각화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널리 발견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A-66을 사만으로 해석하고 있으나,(황수영·문명대,1984) 일부 연구자는 성기가 돌출한 형태로 표현되지 않았고 가슴부분이 부풀게 묘사되었음을 들어 여자로 이해하기도 한다.(정동천, 1988) 그런데 실제 현장조사에서는 일부에서 지적한 '가슴이 부풀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 형상의 사타구니 아래쪽에 소수의 새김 흔적이 있었다. 따라서 A-66의 성(性)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해석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2) 동물상(Zoornorphes)

193점이 확인된 동물상은 크게 바다짐승과 물짐승으로 나눌 수 있다. 목, 과 단위로 살펴보면 사슴, 양, 멧돼지 등을 포함한 우제목(Artiodactyla)이 57점, 호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Felidae), 여우, 늑대 등 개과(Canidae)와 족제비과(Mustelidae)로 분류될 수 있는 식육목(Carnivora)이 26점, 조류 3점 등 물짐승류가 모두 86점이다. 바다짐승인 고래목(Cetacea)은 58점, 바다를 생활무대로 삼는 바다거북류, 분류상 거북목에 속하는 것이 6점, 모두 64점이 바다짐승류이다. 이와 같이 동물상 가운데 식별, 분류 가능한 것은 모두 152점이며, 나머지 41점은 현재로서는 목이나 과 단위로 나누기 어려워 종류미상으로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동물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종별 비중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와 같다.



<전체동물 세부 분포 그래프>

(표)에서 잘 드러나듯이 동물상 가운데 단일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지니는 것은 고래목이며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사슴을 비롯한 우제목(Artiodactyla)이 29.5%로 고래목과 거의 비중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이 흥미롭다. 이외 식육목(Carnivora)이 13.4%, 거북목(Chelononia) 3.1%, 조류 1.5%, 상어를 포함한 어류 1.0%의 차례이다. 종류를 판별하기 어려운 동물상이 전체 비중의 21.2%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 분류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다수 있다.

동물상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으로는 먼저 A-6, A-7을 꼽을 수 있다. A-6을 새끼 뱀 고래로 보는 견해가 처음 제시되어(황수영·문명태, 1984) 이후의 연구자에 의해 수용되다가 새끼고래를 업고 있는 어미 고래로 보는 입장이 더해졌으며,(경동찬, 1988) 최근에는 A-7을 고래에 기생하는 물고기로 해석하는 설도 나왔다.(장석호, 2000)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실측조사를 통해 A-7의 좌측 부분에서 규칙성을 보이는 새끼 흔적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A-7의 꼬리가 수평으로 표현된 점을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고려해 볼 때, A-7 자체는 일단 고래의 일종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동물상 가운데 다음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고래 사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A-17, A-18과 A-29, A-30이다. 이들 형상은 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으로 여겨져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A-18은 A-36과 함께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청동기시대 이후로 내려보게 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실제 실측조사를 통해서도 A-18은 A-17의 몸에 꽂혔음을 드러내려한 듯 창 날 한 부분을 모두 쪼아내기로 나타났으며, 창 끝 부분을 대단히 날카롭게 하여 재질이 금속임을 과시하려 한 듯 보였다.

물짐승의 경우 자세한 종류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뿔이나 귀, 다리, 꼬리 등의 특정 부위가 지닌 특징이 잘 표현되고 있어 분류에 크게 도움을 준다. 이것은 암각화의 제작자들이 특정 종류의 짐승이 지니는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림을 새겨 넣으면서 이러한 면을 드러내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뜻한다. 예를 들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식육목(Carnivora)의 경우, 대체로 몸통을 길게 나타내면서 호랑이를 포함한 고양이과(Felidae)의 짐승은 여기에 더하여 머리를 짧고 둥글게 표현한다던가, 여우나 늑대 같은 개과(Canidae)의 짐승은 주둥이를 길게 나타내는 식의 처리방식이 그러하다. 우제목 가운데 가장 빈번히 발견되는 사슴류는 뿔을 나타내는 방법 외에 영덩이 부분을 풍만하게 묘사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 우제목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짐승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점도 눈에 띈다.

물짐승의 실측과정에서 주의를 끌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멧돼지로 분류되었던 C-7, C-8, C-12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종합보고 이래 멧돼지로 분류되었던 C-7, C-8, C-12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꼬리가 길면서 두툼하다는 사실이다. 실제의 멧돼지에게서 이러한 형태의 꼬리는 발견되지 않는다. 신체상의 제반 특징으로 볼 때, 이들 물상은 오히려 식육목의 한 종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밖에도 동물상으로 보이나, 현재의 동물도감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형상들도 다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다른 물상들이 대단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음을 고려하면, 특정한 종류의 짐승을 나타낸 결과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암각화 제작 당시의 종교적 의식과 관념이 대상의 표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 물상들이 지금은 멸종된 짐승의 형태를 나타냈을 가능성 외에 실제의 형상과는 거리가 있게 묘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3) 도구상

반구대 암각화에서 발견되는 도구상 11점 가운데 배를 그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모두 5점이다. 이 5점 가운데에는 A-20와 같이 고래잡이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D-11과 같이 다른 형상들과 떨어져 표현되어 주변의 그림과 연결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때문에 D-11의 경우, 일부에서는 남해안의 띠배, 동남아의 '영혼의 배'와 관련된 민족조사 결과에 힌트를 얻어(하효길, 1984) 죽은 고래의 영혼을 원초적 고향인 해신(海神)에게로 돌려보내는 혼선(魂船)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장명수, 1987) 그러나 주변의 그림들과 떨어져 표현되었을 뿐 고래잡이와 관련된 표현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D-11을 고래잡이 제의와 연관된 혼선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B-6은 지금까지 종류미상의 짐승 B-7과 관련된 울타리로 해석되었던 물상이다. 최근 이 물상을 배로 보려는 견해도 제시되었는데, 실측조사 결과로 볼 때 B-6은 형태상 배보다는 울타리에 가깝다. 다만, 울타리로 해석하는 데에 이견이 없는 A-20과 비교해 볼 때, B-6을 B-7과 통통그려 한 물상으로 해석할 경우, B-6과 B-7은 특정한 형상으로 분류하기에는 과장과 변형이 심한 물상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해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 물상들을 암각화 제작기법상의 변형(transforme)그림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먼저 새겨진 그림에 대해 이후 다른 제작자가 같은 형상을 의도적으로 덧 그리 넣어 이 그림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변화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각화의 특정 형상 안에서 서로 다른 새김새가 발견되는 경우, 형상 변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미상(未象)

그림 상태는 양호하나 정체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림의 마모 등으로 말미암아 형상 자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미상으로 분류되었다. 일부 형상의 경우,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뚜렷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종류불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상으로 처리된 78점 가운데 정체를 알기 어려운 사례가 24점으로 전체의 30.7%에 해당하고, 형태 불명인 것이 54점으로 69.3%에 달한다.

A-1, C-14는 전체적인 형상이 고래의 율락선을 연상시키며, A-10, A-23, C-3, D-1, D-9,

D-10, H-4는 미완성 그림으로 여겨지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림 A-28의 경우 포경에 쓰이는 부구(浮具)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정동찬, 1988) A-27과 새김새에 차이가 있어 한 장면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A-65, C-58, E-8은 매우 추상적인 형태의 그림이어서 실제 특정한 형상을 묘사한 것인지, 기호(sign)를 나타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2. 새김법

지금까지 반구대 암각화는 새김새를 바탕으로 크게 면 그림과 선 그림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덧그림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면 그림이 선 그림보다 제작시기가 앞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한 상대 편년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상대 편년의 근거가 된 해당 개별 형상의 새김새에 대한 실측조사 결과는 어떠할까.

1984년의 보고에서 아래를 향한 고래로 파악된 A-63은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 선 그림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실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A-63의 모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체의 아래쪽에서 발견되었으며 형상의 꼬아진 윤곽선 안에서 다수의 새김 흔적이 확인되었다. A-63을 선 그림으로 해석한 기존의 견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B-2는 미완성품(문명대, 1973), 렌드렌식 속보기 수법이 적용된 사례(김원룡, 1980), 특정 종류의 고래를 표현한 것(정동찬, 1996) 등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실측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2는 형상의 아래 부분과 중간 부분 새김 밀도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외형상 A-1과 매우 닮았다. 따라서 B-2의 경우를 바탕으로 암각화의 제작 단계를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①윤곽선을 꼬아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새긴 다음, ②내부의 특정부위에서부터 차차 세밀하게 꼬아 형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③마지막으로 전체 형상을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에 큰 무리가 없다면 이제까지 선 그림으로 분류되었던 형상들 가운데 다수는 면 그림의 미완성 상태이거나, 표현 기법상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욱이 선 그림이나 면 그림으로 나뉜 개별 형상들 사이에도 제작 기법이나 새김의 깊이, 새김의 밀도 등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발견됨을 고려하면(사진4), 기존의 선, 면 분류에 기초한 편년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행해질 국내의 암각화 유적 조사에서는 개별 형상에 적용된 '제작 기법'과 '표현 기법'의 차이, 다양한 새김법의 적용 가능성, 개별 새김법의 단계, 덧그림을 통한 형상 변형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면서 얽은 채록(壓痕採録)을 비롯한 다양한 채록방법의 병행, 암각화 제작도구를 추정하기 위한 모의실험 데이터 축적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형상분류 내용

(1)인물상(1~7:1/5, 8:1/3)



1(A-2)



2(C-72)



3(C-78)



4(C-39)



5(C-70)



6(I-1)



7(A-66)



8(C-11)

(2)동물상-거북목(Chelonia)(9~13:1/5, 14:1/3)



9(A-3)



10(A-4)



11(A-5)



12(C-56)



13(C-59)



14(E-4)

도면14 셀로작업도면 I

(3) 동물상-조류<15~16:1/5>



15(C-19)



16(C-16)

(4) 동물상-고래목(Cetacea)<1~18:1/10, 19~34:1/5>, 어류<35:1/10>



1(A-6)



2(A-16)



3(A-33)



4(A-17)



5(C-64)



7(B-2)



8(A-31)



9(D-49)



10(C-75)



6(C-18)



11(A-47)



12(A-48)



13(A-49)



14(C-61)



15(A-63)



16(A-45)



17(E-5)



18(F-3)



19(A-32)



20(A-62)



21(A-7)



22(B-1)



23(C-30)



24(A-30)



25(C-31)



26(A-61)



27(B-23)



28(D-12)



29(A-35)



31(D-23, 24)



33(D-2)



34(F-5)



35(A-57)



30(E-3)



32(C-44)

도면16 셀로작업도면 III

(5) 동물상-우제목(Artiodactyla)〈1~8:1/10, 9~10:1/3, 11~31:1/5〉



1(B-13)



2(C-4)



3(D-21)



4(C-36)



5(C-32)



6(C-48)



7(D-40)



8(D-42)



9(A-24)



10(A-26)



11(A-11)



12(A-13)



13(A-46)



14(B-12)



15(C-22)



16(C-33)



17(C-41)



18(C-62)



19(C-81)



20(C-34)



21(C-54)



22(C-42)



23(D-22)



24(C-73)



25(D-5)



26(D-17)



27(D-29)



28(E-2)



29(D-30)



30(D-44)



31(H-1)

(6) 동물상-식육목(Carnivora) <1~9:1/10, 10~18:1/5>



1(A-37)



2(B-4)



3(C-7)



4(C-8)



5(C-77)



6(D-19)



7(D-41)



8(F-1)



9(C-15)



10(D-26)



11(B-17)



12(C-12)



13(A-15)



14(C-24)



15(D-27)



16(O-1)



17(E-7)



18(B-8)

(7) 도구형상 <1~9:1/5>



1(D-11)



2(F-4)



3(A-29)



4(A-22)



6(A-18)



7(A-14)



8(A-20)



5(C-6)



9(C-6)

도면 19 셀로작업도면 ㉞

(8)미상<1~22:1/5>



1(C-9)



2(A-34)



3(C-74)



4(D-25)



5(D-1)



7(D-16)



8(D-8)



6(D-36)



9(D-9 · 10)



10(E-8)



11(H-4)



12(A-1)



13(A-10)



14(A-23)



15(A-27)



16(A-65)



17(A-28)



18(A-36)



19(C-58)



21(C-3)



22(C-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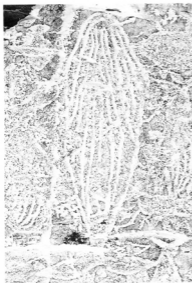
20(C-10)



A-65



A-30



A-45



C-45

사진15. 기존에 선그림으로 알려진 그림들

VI. 考 察

1. 考古學的 資料로 본 盤龜臺岩刻畫

1) 반구대암각화와 울산

반구대 암각화 제작시기는 연구자에 따라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삼한시대(三韓時代)까지 대단히 큰 연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구석기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석기시대부터 삼한시대에 걸친 유적은 다수 발견, 조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울산지역에서 발견된 해당 시기 유적들을 중심으로 반구대 암각화 유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舊石器時代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앞으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암각화 유적과 관련된 구석기시대 유적의 발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울산과 이웃하고 있는 밀양 고래리에서 후기구석기시대 유적이 조사되었으나, 이 유적의 경우 대곡리 반구대 유적과는 직선거리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을 뿐 아니라 두 유적 사이에 해발 1,240m의 가지산이 자리잡고 있어 공간적으로 서로를 이어서 살펴보기 어렵다.

(2) 新石器時代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대부분 현재의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학술 조사가 이루어져 문화내용을 알 수 있는 울산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서생 신암리유적(국립중앙박물관, 1988, 1989), 황성동 세죽유적, 온양의 우봉리유적(동아대학교박물관, 1997)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들이 하나 같이 해안선에 잇대어 자리잡은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울산지역 역시 신석기 문화와 내륙지역과의 관계는 그리 밀접하지 않다. 태화강을 비롯하여 비교적 많은 하천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신석기시대의 주거공간이 해안에 치우쳐 있음은 그만큼 이 시기의 경제활동이 바다에 집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신암리유적이나 황성동 세죽유적의 예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의 패총에서는 바다짐승 및 어류 뿐만 아니라 사슴, 돼지를 비롯한 물짐승의 뼈도 다양 발견된다. 이것은 신석기시대의 주생업무대가 바다였음에도 내륙을 무대로 한 활동도 어느 정도 행해졌음을 뜻한다. 사슴, 돼지 등은 반구대 암각화에 묘사된 다양한 물짐승들 가운데에서도 발견되는 것들이다. 특히 사슴의 경우, 반구대 암각화에 가장 많이 표현된 물짐승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편 황성동 세죽유적과 신암리유적에서 수습된 흑요석계 유물들은 당시 해양활동의 범위에 일

본연도가 포함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유적과 출토유물들은 반구대 암각화에 묘사된 고래잡이 장면들과도 연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위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는 고래뼈도 확인되어 당시 고래도 식용으로 이용되었음을 알게 한다.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해안에 밀려온 죽은 고래가 신석기시대의 주민들에 의해 식용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미 어느 정도 원거리 항해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함께 참고할 때, 이들 울산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이 조성되는 시기에는 직접적인 고래잡이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둘 때, 반구대 암각화의 주요 내용은 울산지역 신석기시대의 문화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3) 青銅器時代

청동기시대 유적은 울산의 전지역에 걸쳐서 확인되고 있다. 조사 및 발굴을 통하여 확인된 유적도 많을 뿐 아니라 울산지역에서의 무문토기 산포 면적이 대단히 넓다는 지표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부터 울산지역은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대부분 야트막한 구릉과 하천 변을 따라 분포하여 신석기시대 유적과 대비를 이룬다. 이와 같은 유적 분포상은 청동기시대의 경계가 앞의 신석기시대와 달리 농경에 주로 의존하였음을 시사한다. 실제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가운데에는 농경의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水田'의 흔적이 확인되는 예가 많다.

청동기시대 경제활동의 초점이 농경에 두어졌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지역별 생활환경의 차이에 따라 어로 및 수렵활동의 비중이 농경에 비해 높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농경을 겸한 구릉지 거주 청동기시대 주민의 경우, 어로활동의 무대는 내륙의 하천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바다를 대상으로 한 어로활동은 상대적으로 미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까지 반구대 암각화 유적과 인접하여 발견,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10여 곳을 헤아린다. 문제는 이들 청동기시대 유적들과 반구대 암각화에 나타난 문화상 사이에 별다른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천상리유적, 구영리유적, 굴화리유적, 입암리유적, 옥현유적 등이 하나 같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농경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데에 비해, 반구대 암각화에는 농경과 직결된 활동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구대 암각화에 보이는 가축을 위한 울타리, 혹은 맹수를 잡기 위한 울타리는 농경과 관련된 수도 있으나, 오히려 수렵사회의 모습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집단이 청동기시대의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생업경제의 초점이 농경에 가 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겠다.

(4) 三韓時代

삼한시대의 유적은 고분군을 중심으로 울산의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동기시대 이래의 활발한 주민활동이 이 시대에도 울산지역에서 계속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삼한시대의 생활유적이 확인된 경우는 거의 없다. 아마도 삼한시대부터는 생활공간으로 구릉보다는 평지가 선택된 까닭에 이 시기의 생활유적이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거주공간과 중복되어 쉽게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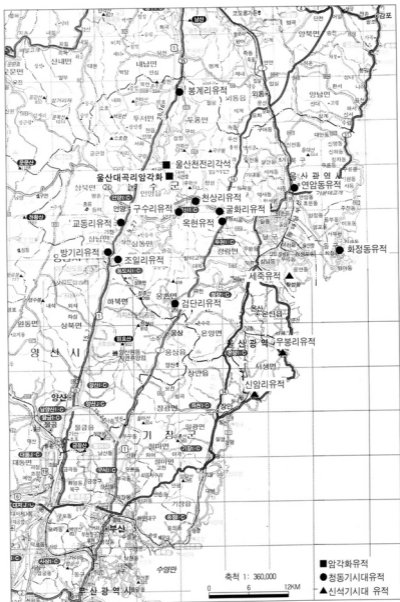
울산지역에서 발견된 삼한시대 유적 가운데 2세기 이전의 것으로는 최근 조사된 온양 대안리유적을 들 수 있다.(울산대박물관, 2000) 대안리유적은 삼한시대 전기 분묘유적으로 출토유물이 대단히 빈약하여 피장자들의 수렴활동과 연결시킬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고고학의 연구성과로 볼 때 반구대 암각화에 표현된 수렴활동과 연결할 만한 삼한시대의 유적이 울산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에 사용된 도구가 굵이 뾰족한 철기일 것이라는 주장은(김원동, 1980) 암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작도구의 문제는 암각화가 새겨진 암벽의 재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반구대 암각화가 새겨진 암석은 세알인데, 세알은 퇴적암계통으로 수성쇄설암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점토질암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퇴적암은 화성암에 비해 강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화성암중에서 비교적 강도가 높은 암석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퇴적암의 표면에 흠집을 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철기가 아닌 강도가 높은 화성암계 석재를 사용하여도 암각화 제작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화성암계 석재, 청동기, 철기를 이용한 실험고고학적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2) 岩刻畫의 製作時期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유적과 관련하여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시기를 유추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 역사학, 지질학, 선사미술, 인류학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여러 각도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시기는 넓게는 구석기시대 후기에서 삼한시대까지, 좁게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울산지역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아직까지도 조사된 예가 없으나 앞으로의 발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인접한 밀양 고래리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조사되었고, 부산에서도 확인되었음을 고려하면 울산지역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가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관련된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문점송 그림을 구석기시대 말기 사회와 관련짓는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더 이상의 설득력 있는 정황적 증



도면21. 발굴조사된 울산지역의 선사시대유적 분포도

거나, 국내의 연구성과에 근거한 일본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표명된 것이어서 학계에 받아들여지는 때에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울산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비교적 조밀하게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울산공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대부분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도 서생면 신암리유적, 온양읍 우봉리유적, 황성동의 세죽유적 등 3곳이 전부이다. 따라서 신석기시대 울산지역 주민의 생활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세죽유적도 석유화학단지의 한 모퉁이에 남아 있던 것으로 개발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반구대암각화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울산지역의 고지형을 추정한 연구성과에 의하면 6,000BP에서 5,000BP경 울산에서는 현재의 굴화지역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상일·윤순옥, 1985) 이것은 울산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신석기인들이 반구대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10km내외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만일 배를 이용하여 현재의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가 반구대에 이르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유리했음을 뜻한다.

한편 최근 조사중인 세죽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골체 가운데에는 반구대 암각화에 묘사된 다양한 물짐승의 뼈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면들을 고려할 때 반구대 암각화 유적의 제작 상연연대는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울산에서는 10동 미만으로 이루어진 청동기시대의 소규모 마을유적부터 마을 전체를 둘러싼 환호를 지닌 대규모 주거유적까지 다양한 구성과 규모의 유적들이 전지역에 걸쳐 골고루 확인된다. 이것은 청동기시대의 주민들이 어로, 수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신석기시대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이 농경 위주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진 것과 관련이 깊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농경 위주의 생존방식이 주거공간을 내륙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반구대 암각화 유적 인근에서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들이 발견되는 것도 생산방식의 변화, 주거지역의 확대라는 청동기시대의 사회현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처럼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반구대연대의 접근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반구대 암각화에 묘사된 내용들은 청동기시대의 주민 생활방식과 비교할 때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청동기시대에도 어로와 수렵은 행해졌을 것이나, 이 시대의 사회 상황이 농경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반구대 암각화에 농경과 관련한 직접적 표현이 보이지 않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반구대 암각화 제작집단이 청동기시대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농경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어로 및 수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 등이 상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울산에서 확인된 삼한시대의 유적은 주로 고분군이기 때문에 생산활동 및 이와 관련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제작집단과 직접 연관짓기가 어렵다. 다만 분묘유적도 기본적으로 생활유적의 존재를 전제로 함으로 삼한시대 분묘유적의 분포, 구성, 출토유물 등을 바탕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대안리유적을 비롯한 삼한시대 분묘유적으로 확인된 문화내용과 반구대 암각화의 내용 사이에 연관지를 수 있는 요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반구대 암각화에 보이는 노(弩)로 보이는 물상 등과 이웃 일본의 야요이(弥生)시대 유적 출토 유물과의 유사성 등의 문제는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검토에서 드러나듯이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시기를 추정하기에는 아직 자료상의 한계가 크다. 특히 암각화에 제작 당시의 생활도구나 생활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거의 없어 제작시기를 추정하기 더욱 어렵게 한다. 암각화에 주로 바다짐승과 물짐승이 묘사되고, 이런 짐승들이 사냥되는 장면들이 표현되었음을 들어 반구대 암각화가 아직 농경이 시작되기 전인 어로, 수렵단계 사회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목적이나 성격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통일 시거나 시대에도 지역이나 생태환경, 문화단계, 집단의 구성방식에 따라 생활혼적이나 도구의 생산방식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개별 학문의 연구자료나 방법론에 따른 성과물을 단순 대비하는 방식은 지양될 수밖에 없다. 학제간 종합연구가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련성이 있는 모든 학문분야의 방법론과 연구력이 더해지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구대 암각화의 실제 규명은 요원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岩刻畵 遺蹟의 調査·研究 方法에 對한 檢討

울산 천진리 서석의 암각화가 학계에 최초로 알려진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만 20여 개의 유적이 잇달아 발견되었다. 이제 한국의 암각화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의 관련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포함한 모두의 몫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확인된 암각화 유적은 대략 10만여 곳에 이르며, 이들 유적에서 확인된 그림의 수만 2천만 점에 이른다. 이들 유적 가운데 70% 이상이 80년대 이후 발견된 것들이다. 암각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열기가 국내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수많은 국내외의 암각화 유적 가운데 체계적으로 조사, 보고된 유적의 수는 극히 적다. 이미 조사, 보고된 유적도 연구자와 연구기관 사이의 일처된 조사 방법 없이 이루어진 예가 많아 기록상 차이가 커 객관적인 접근과 연구, 성과의 공유에 저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조사된 암각화 유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적에 대한 정확한 기초 조사의 부재(不在)는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유적에 대한 중복조사를 불가피하게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암각화 유적을 조사할 때 고려되어야 할 조사 내용 및 항목, 연구분석 방법 등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 조사 연구과정에 대한 개념도



1) 제1단계 - 문헌조사와 검토내용

A. 유적에 대한 기존 연구내용이나 발견과정과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의 자료

이미 조사 보고된 유적일 경우는 연구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미보고(未報告)된 유적의 경우 발견 경위와 이 과정에서의 공문서, 서신, 신문, 기타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

B. 유적의 주변 환경에 대한 자료

유적이 위치한 지역의 지리, 기후와 식생(植生), 지질학적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와 문헌자료 검토

C. 조사유적 주변 매장문화재, 사적 등에 대한 자료

주변 유적에 대한 발굴 보고서와 문헌을 참고해 유적분포 내용을 정리하고 암각화 유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며 조사이후 암각화의 형상과 주변 출토 유물의 유사성을 관찰함

D. 기타 조사방법과 목적에 관련된 다른 암각화 유적의 연구사례 등

조사 목적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시 필요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분석 방법 등을 고려함

2) 제2단계 - 현장 조사(Prospection)

A. 위치 측정

가능한 한 GPS장비 사용해 경·위도 해발, 방향 등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기록, 위치 표시는 1:1000축척 지도상에 표시

B. 유적의 주변 환경

유적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 사정 교통편, 인근 마을 등에 대한 내용과 주변에서 관찰되는 강의 흐름세, 지형 조건에 대한 부분을 기록

C. 발견된 암각화에 분류번호를 부여

발견되는 암면과 형상에 대한 분류번호를 부여하되 유적의 명칭(site)은 일반적으로 지역을 사용하고, 구역(zone)은 동일 유적내에서 암면이 다수 분포하고 이들간의 근접을 이룰 경우 자연적인 경계(계곡, 높낮이, 강 등)를 고려해서 분류한다. 암면과 암면 간의 중심위치가 통상 2km를 이룰 경우 서로 다른 구역으로 분류하는 경우(E. Anati, 1963)도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를 무리하게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면(face)는 한 암면에서도 방향에 따라 여러 개로 나뉘지며 동일 방향이라도 자연적인 균열, 형상 분포 등을 고려해 세분하며 면별로 형상에 번호를 부여

D. 유적 암면에 대한 실측

암면(巖面)에 대한 실측을 통해 면의 전체적인 형태, 자연적인 틈, 탈락부분, 이끼 등의 자연적인 상태와 새겨진 형상의 위치, 중복상태, 다른 그림과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해 방안지에 1:10 비율로 기록

E. 무색 비닐과 유성펜을 이용한 채록

암면 전체 또는 부분으로 나누어 형상에 대한 채록, 조사용 비닐 부착은 종이테이프를 사용하거나 지지대(支持臺)를 사용하고 형상의 윤곽선과 형상내부의 자연면(自然面), 형상외부의 각흔(刻痕), 탈락면과 틈, 이끼, 지면 등 흑색 유성펜으로 그려낸다. 덧 그림이 심할 경우 다른 색깔을 사용한다. 형상 채록이 끝나면 하단 우측면에 분류번호, 방향, 암면 기술기, 날짜 등을 기록하여 잘 보관한다.

F. 각 분류번호에 따라 암각화 세부사항 기입

채록이 끝나면 조사지(별첨 참조)에 내용을 기술하고, 조사 목적에 따라 압흔(壓痕)내기나 기타 채록 방법을 병행한다.

G. 사진 촬영

유적 전경, 주위 환경, 압면 전경, 형상에 대한 정밀 촬영을 실시하며 형상 촬영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압면과의 거리, 조명 사용 등을 고려

3) 제3단계 - 도면 제작과 기록

A. 면별 도면

채록한 비닐을 복사기를 사용해 1:5 이나 1:10 도면 제작하고 이때 그 면(face)에 해당하는 자연 암석 상태와 형상 모습과 위치가 정확하게 그려져야 한다. 완성된 도면에 축척비율과 유적 명칭, 분류번호, 방향 등을 일정하게 표시한다.

B. 형상별 도면

개별 형상에 대한 1:1 도면 제작한다. 형상과 그 주변 상태가 정확하게 나타내져야 하고 내부 각흔도 가능한 한 자세히 표현되어야 한다. 완성된 도면에 분류번호와 크기 등을 표기한다. 완성된 도면은 분류 기준으로 카탈로그를 만든다.

C. 압면 위치도

유적에 대한 지형도와 압면에 대한 위치도를 작성하고 전체 압면에서 면별 위치를 표시

D. 사진 자료 정리

형상 도면 분류방식과 동일하고 유적 전경, 압면 전경, 압면, 세부 형상별 순으로 정리

4) 제4단계- 데이터 입력(numérisation)

A. 스캐너 작업

작성된 도면과 사진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 출력에 용이하도록 분류표 작성

B. 조사 기록지 내용입력

조사 기록지의 내용을 입력하여 통계적인 분석 기초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활용한다.

5) 제5단계 - 분류 및 분석 연구

(1) 통계적 분석

A. 유형 분류(Typologie)

기록된 형상들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 형상의 종류와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

B. 형태 분석(Morphologie)

유형별 형상에 대한 형태적 특성 즉 크기, 새김법, 덧 그림 대한 내용을 분석

C. 연관 그림(gravure d'associations)에 대한 분석

다른 형상과의 관계, 빈도, 구조적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연관 관계를 밝히고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

(2) 비교 분석

D. 다른 암각화 유적과의 비교 연구

다른 유적의 형상과의 유사성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E. 고(古) 문자와의 비교 연구

중국 갑골문 등 인근 지역의 고문자와 비교연구 또 토기편이나 골각기 기타 유물에서 발견되는 기호(signe)와의 비교 연구

F. 전통 종교, 신화와의 비교 연구

민간 신앙, 무속 신앙, 장례 풍습 등 전통 종교에 대한 제의와 인근 주변(국)의 신화와의 관련성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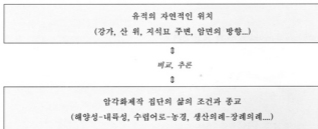
G. 민족지(Ethnographie)와 비교 연구

F. 발굴된 유적·유물과의 비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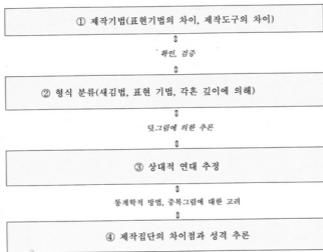
고고학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제작 연대, 제작 집단, 생활 조건, 종교 의식 등등에 대한 연구

(3) 연구 방법론 정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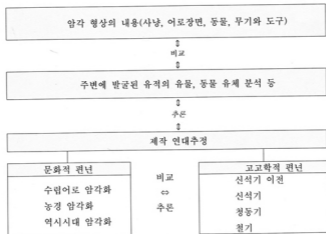
가. 자연 지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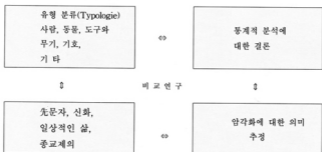
나. 암각의 유형분류와 연구단계



다. 유적과 암각화의 비교



라. 암각화에 대한 해석과 결론



6) 제6단계 - 보고서 작성

- A.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발표
- B. 암각화의 종합적인 보존 활용방안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C.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 불어판 등을 출판하여 외국 연구자들에게도 자료제공

【별첨 자료】

압각 상태	유적명 : 구역(Zone) 바위 : 면 : 그림 : n°					
	그림 내용 : 암석 색깔 : 경·위도 : 기울기 : 압면 방향 :		압면 가로길이 m 세로길이 m		형상 가로길이 cm 세로길이 cm	
	연관 그림 :		연관 그림내용 :			
	덧그림 : n° 의 上·下 n° 의 上·下		그림내용 :			
	덧그리기(transforme)		내용 :			
	보존상태 : 매우 좋음() 거의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압면상태 : 매끄러움() 보통() 거칠() 매우 거칠()						
새김법	압각 외면	상태		각흔	마무리 점	마무리 선
		선 명()	규 칩()	널 침()	없 음()	없 음()
		불선명()	불규칙()	안널침()	불규칙()	불규칙()
	압각 내면	길이	상태	내외면의 차이	갈기 기법	기타 기법
		매우 얇음()	고 큼() 불규칙()	분명함() 불분명()	있 음() 없 음()	
		조금 얇음()				
		길 음()				
	매우 길음()					
	각 흔	【형태】 둥근() 계단형() 길쭉함() 매우 길쭉() 규칙() 불규칙()				
		【길이】 매우 얇음() 조금 얇음() 길음() 매우 길음()				
【크기】 매우 적음() 적음() 보통() 큼() 매우 큼()						
【간격】 겹침() 연결() 가까이() 간격 있음()						
【기술(記述)】						

VII. 암각화유적의 보존방안

반구대암각화는 이미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보호라는 말이 무색하게 반구대 암각화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국보로 지정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보호·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이후에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 최근에 암각화에 대한 울산시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보존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유적의 보호·보존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관광자원으로서의 암각화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허연옥, 2000) 물론 암각화는 관광자원으로서 훌륭한 소재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암각화는 선사 시대의 문화유산으로서 관광자원이기 이전에 교육적 자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반구대암각화의 현상태는 지극히 위험스러운 것이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암각화가 암면에 새겨진 이후 지금까지 최소한 2000년 이상을 아무런 문제없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암각화가 발견된 이후 30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암각화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이유는 대곡천의 하류에 건설된 사연댐이었는데 이견이 없다. 사연댐은 유역면적이 124.50㎢, 총저수용량이 25백만 m^3 로, 하절기에 담수되면 댐최대높이 66.4m의 63.2m까지 물이 차게 된다. 이때 반구대암각화의 가장 높은 면 해발 55.2m를 넘어치게 된다. 또한 사연댐에 상시적으로 담수 되어 있을 시(60.0m) 반구대암각화는 항상 물 속에 잠기게 된다.

반구대암각화는 연중 약 8개월 정도가 물 속에 잠겨 있고, 갈수기 약 4개월 정도만 물 밖으로 들어 나게 되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변화는 암각화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반구대암각화는 급격한 환경변화가 매년 지속되면서 암각화의 표면이 박리되고, 탈락해 가는 현상이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암각의 표면탈락은 암각화가 수몰되면서 제기된 문제점으로 암각화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암각화의 침수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암각화의 침수를 억제하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류에 위치한 사연댐의 담수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고 생각된다. 암면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퇴적암 계통의 세일로 수분의 흡수가 많은 편이다. 암석의 내면에 침투한 수분들은 암석의 균열을 촉진하게 되므로, 표면부터 점차적으로 박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진16. 암각화 표면의 박리된 모습

암각화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연담의 담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반구대암각화 앞을 지나는 유로를 변경하는 방안 등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방안은 상류에 건설예정인 대곡댐의 저수량을 조정하여 반구대암각화가 항시 수면 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적하다. 이상의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 반구대암각화가 물 속으로 침수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만 한다.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가 종합보고서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부분적인 암각화의 조사가 진행되어져 온 것 이외에 반구대암각화와 원전리 서석에 포함한 대곡천일대의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구대암각



사진 17. 암각화 표현의 탈락된 모습

화는 단순하게 대곡천 주변, 또는 언양읍주변에 국한되는 유적이 아니라 울산전지역과 경주지역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관련된 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자연과학적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는 종합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한다.

최근 대곡천을 따라 일지한 암각화를 주요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곡천일대에 암각화와 관련된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종합적인 조사를 토대로 한 교육적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않는다면 실속 없는 쪼갬기들의 나열에 불과할 것이다. 반구대암각화를 선사시대의 문화유산으로서 일차적인 의미를 가지며, 일차적인 의미가 필요로 하는 종합조사가 이루어진 후 반구대암각화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육적인 자료로서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추진되고 있는 반구대암각화와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은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없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암각화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본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조사단의 보존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반구대암각화를 포함한 주변지역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광범위한 학술 정보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합연구보고에는 반구대암각화와 원전리 서석에 대한 주형의 제작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보로 지정된 양 암각화에 대해서는 연구자조차도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통해 실물주형을 제작하고 이를 암각화 연구자와 일반인들에 공개하여 연구의 활성화에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방안이다. 상기했듯이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서는 암각화 앞으로 흐르는 대곡천의 수량을 최소화하여 반구대암각화가 물 속으로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암각화가 침수되지 않으면서도 일반인들의 접근을 견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 연중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이 제일 중요하다. 이는 하류의 사연댐이 담수량을 줄이고 상류에 건설 중인 대곡댐에 의한 수량조절로서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하류의 수량조절을 통하여 반구대암각화 앞으로는 연중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암각화의 조성당시에서 사연댐이 만들어진 전까지 반구대암각화가 유지했던 자연환경과 일치하는 것이 때문에 가장 안전한 보존방법이다.

셋째로 종합연구보고를 토대로 암각화전시관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암각화의 연구는 단순히 일회의 조사로 종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반구대암각화 연구를 토대로 국내외 암각화, 나아가서 세계암각화와 비교연구를 위한 암각화연구센터를 전시관 내에 설립하여 전시와 연구기능을 가지는 종합적인 암각화연구소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반구대암각화와 다른 지역암각화가 함께 전시된 전시관을 관람한 관람객들은 다음으로 실제 암각화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두 번째 방안에 언급되었듯이 암각화 앞으로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도록 한다면 암각화와 관람객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게 된다. 실제로 암각화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m 이내로 접근하여야 함으로 암각화내용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암각화를 보기 위해서는 전망대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전망대에는 망원경이 설치되어야 하며 망원경은 암각화의 세부내용과 전체면을 볼 수 있도록 배율이 조정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문화재는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유산으로 우리는 당대에 남아 있는 많은 문화재들을 후대에까지 무사히 물려줄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문화재를 후대에까지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반구대암각화도 선사시대를 거치면서 당대에까지 모습을 유지해 오고 있다. 당대에 반구대암각화가 소멸되어버리는 불행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보호각을 만들어 지하수를 차단한다거나, 전체를 수지로 코팅한다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패하여 오히려 훼손을 가속화시킨 예를 보아왔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석굴암이다. 지하수를 차단하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도입했으나 훼손의 진행속도가 줄어들지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되었다는 결과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좋은 문화재보존방법은 문화재가 조성되고 유지되어온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구대암각화를 가장 오랜 기간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암각화를 제작할 당시의 환경과 사연담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황으로 주변환경을 조정해 준다면 반구대암각화는 보다 오랜 기간 우리들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암각화 연구센터의 건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방안 등이 새천년을 맞이하여 보다 활기차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VIII. 맺음말

울산이 '암각화의 도시'라는 사실은 오히려 울산 바깥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1971년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유적이 공식적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언론을 통해 내외에 크게 알려지자, 국내외에서 이 특별한 유적을 살펴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게 되었다. 이때까지 국내에서 '암각화'유적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었던 까닭에 이 새로운 형태의 유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두동면 천전리 서석에 새겨진 암각화와 함께 반구대 암각화는 이후 30년에 걸쳐 발견된 20여 곳의 다른 곳의 암각화와는 규모와 내용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복잡하고 다양하다. 현재 국보로까지 지정 관리되고 있는 두 암각화 유적은 발견 당시부터 국내외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발견이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기까지 이들 유적의 암각화에 대해서는 모든 고고학, 미술사 유적, 유물 연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정밀한 실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비록 울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박물관과 미술관, 주요 관공서나 문화기관 가운데 이 유적의 탁본이나 대형 사진이 전시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지만 실제 유적의 정확한 1:1 실측도면을 지닌 곳은 한 곳도 없다. 물론 지금까지 발견된 20여 곳에 이르는 영호남 지역의 암각화 유적도 정밀실측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급변 울산대 박물관에 의한 반구대 암각화 유적 실측조사보고서 작성과 출간은 학술 내외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울산대 박물관은 암각화 유적을 실측하는 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진 촬영, 실측, 탁본, 셀룰로지를 이용한 형 뜨기 등의 방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유적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 이상의 자료들을 현장에서 확인, 정리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 탁본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것보다 많은 자료가 추가로 게재,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유적의 실측조사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제언하고 싶은 것은 유적의 특성에 대한 조사 및 연구자료 축적과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연구 체제 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 특히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유적의 보호 및 관리, 유적에 대한 관련 학문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암각화 유적이란 속성상 선사 및 고대인의 '기호적 언어'이자, '종합 예술'이다. 때문에 개별 학문분야에서의 독자적 접근보다는 종교학, 인류학, 신화학, 고생태학, 지질학, 보존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의 공동접근과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공동조사연구는 제한된 기간 동

안 이루어지는 단독연구로 말미암은 오류를 방지하고 분야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 분야 사이의 협조 아래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공동연구는 이를 위한 연구기금 마련이나 연구기관 설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조사자료의 축적도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울산광역시에 민,학,관이 함께 마련하고 운영하는 암각화 연구기관의 설립이 조기에 가시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 한다.

[참고문헌]

* 국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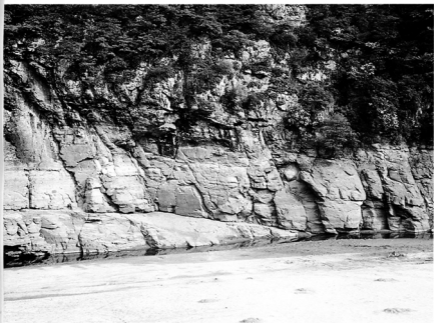
- 문명대, 1973, 「울산선사시대 암벽각화」, 『문화재』7호, 문화재관리국.
- 황용훈, 1975, 「한반도 선사시대 암각화의 제작기법과 형식분류」, 『고고미술』127, 한국고고미술학회.
- 황용훈, 1978, 「한국 선사암각화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광익, 1978, 「한국 선사암각화에 대한 일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봉, 1980, 「울주 반구대의 암각화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9, 한국고고학회.
- 김연규, 1983, 「한국문학사-그 형상과 해석」, 탐구당
- 황수영, 문명대, 1984, 「반구대」, 동국대학교 출판부.
- 임장순, 1984, 「한국금석집성」, 일지사.
- 박영희, 1984, 「울주 천전리 암각호의 제작시기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석호, 1986, 「반구대 암각화의 조형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호, 1991, 「천전리 서석각화 연구-형상과 변이과정을 중심으로-」, 『예술문화』4, 계명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 장석호, 1998, 「바위그림이 집중된 곳, 제사의례의 중심지-대곡리 바위그림을 중심으로-」, 『중앙아세아에서의 고대오쉬』, 오쉬국제학술대회요지문.
- 장석호, 1999, 「한국의 바위그림」,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과 문화적 변화의 연구』, 상트페테부르크.
- 장석호, 2000, 「울산암각화의 형상분석과 양식비교」, 『암각화국제학술대회논문집』, 예술의 전당·울산시.
- 송화섭, 1991, 「한국의 암석각화와 그 의례에 대한 고찰」, 『한국사상사』, 석산한중만박사회갑기념논문집, 원광대학교출판국.
- 정동원, 1988, 「울주대곡리의 선사바위그림 연구」, 『손보기박사회갑기념고고인문학논총』.
- 임장혁, 1991, 「대곡리 암벽조각의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24, 한국민속학회.
- 황상업, 윤순옥, 1995, 「반구대암각화와 후빙기 후기 울산만의 환경변화」, 『한국제4기학보』9, 한국제4기학회

- 전호태, 1996, 『울주 대곡리, 천천리 암각화』, 『한국의 암각화』, 한길사
- 고재룡, 1997,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장명수, 1997, 『울산 대곡리 암각화인들의 생업과 신앙』, 『인하사학』5, 인하대학교사학회
- 장명수, 1999,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에 나타난 신앙의식』, 『울산연구』1, 울산대학교박물관.
- 김권기, 1999,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이해와 연구방향에 대하여』, 『울산연구』1, 울산대학교 박물관.
- 김수진, 2000, 『울산암각화의 보존문제』, 『암각화국제학술대회논문집』, 예술의 전당·울산시.
- 김건수, 2000, 『울산암각화에 나타난 어로문화와 경제단계연구』, 『암각화국제학술대회논문집』, 예술의 전당·울산시.
- 천진기, 2000, 『울산암각화를 통해 본 동물숭배, 생식신앙, 민속의례와 세계관』, 『암각화국제학술대회논문집』, 예술의 전당·울산시.
- 허연옥, 2000, 『울산암각화의 문화관광자원 개발문제』, 『암각화국제학술대회논문집』, 예술의 전당·울산시.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7, 『울산우봉리유적』, 고적조사보고서 제26집.
- 국립중앙박물관, 1988, 1989, 『울산 신암리유적 I, II』,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20, 21쪽.

* 국외자료

- Jean Clottes, 2000, 『Le Musée des roches』, Paris, Seuil
- Michel Lorblanchet, 1995, 『Les Grottes ornée de la préhistoire』, Paris, Errance
- Denis Vialou, 『La Préhistoire』, Paris, 1991, Gallimard
- E. Anati, 1989, 『Les Origines de l'art et formation de l'esprit humain』, Paris, Albin Michel
- H. de Lumley, 1992, 『Le Mont Bego』, Paris, Imprimerie national.

圖
版



도면1. 반구대 암각화 유적 전경



도면2 반구대 암각화 전경



도면3. 반구대 암각화 A면 전경



도면4. 반구대 암각화 A면-부분(A-47·4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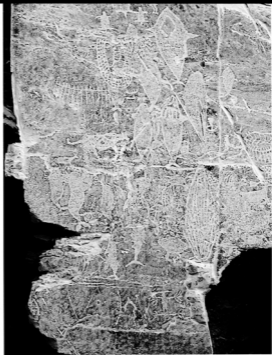
도면5. 반구대 암각화 A면-부분(上:A-14주변, 下:A-19주변)



도면6. 반구대 암각화 A면-부분(上:A-17주변, 下:A-8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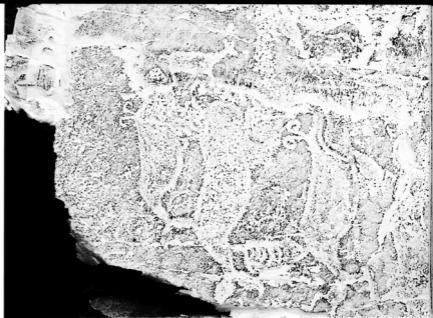
도면7. 반구대 암각화 A면-부분(上:A-45주변, 下:A-22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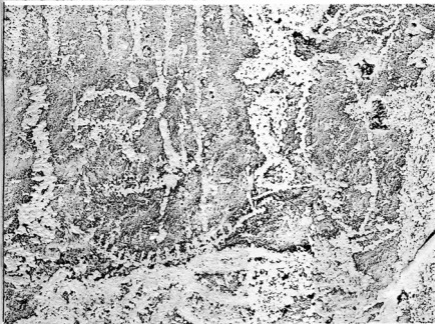
도면8. 반구대 암각화 A면 탁본(上)과 반구대 암각화 A-65·66면(下)



도면9. 반구대 암각화 A면-부분 탁본(上:상단, 下: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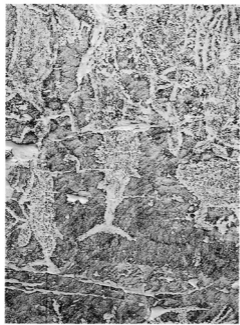
도면10. 반구대 암각화 A면-부분 탁본(上:A-47·48·49주변, 下:A-1·2·3·4)



도면11. 반구대 암각화 A면-부록 표본(上:A-8주면, 下:A-29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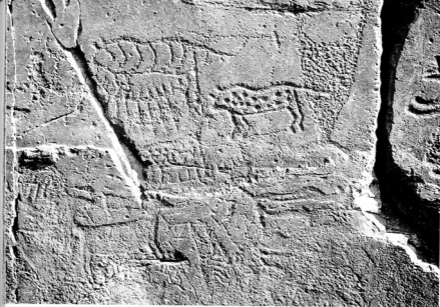
도면12. 반구대 암각화 A면-부분 탁본(上:A-17·18, 下:A-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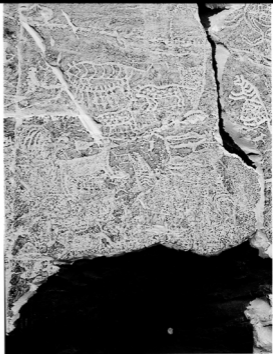
도면13. 반구대 암각화 A면-부분 탁본(上:A-45, 下:A-57주변)



도면14. 반구대 암각화 8면 전경(上)과 부분(下)



도면15. 반구대 암각화 B면-부분(B-0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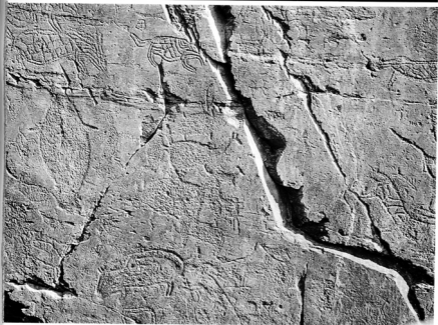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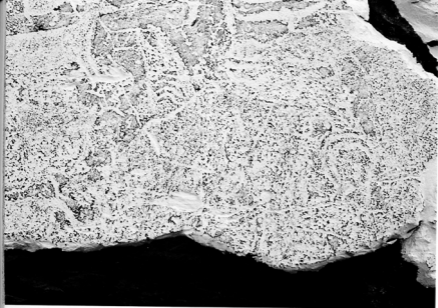
도면16. 반구대 암각화 B면-부분(上:하단 탁본, 下: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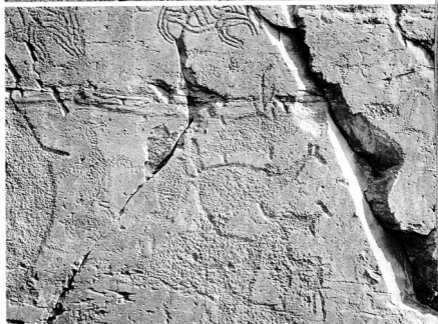
도면17. 빈구대 암각화 B면-부분 탁본(上:하단, 下:B-6)



도면18. 반구대 암각화 6면-부분(上:B-3, 下:B-13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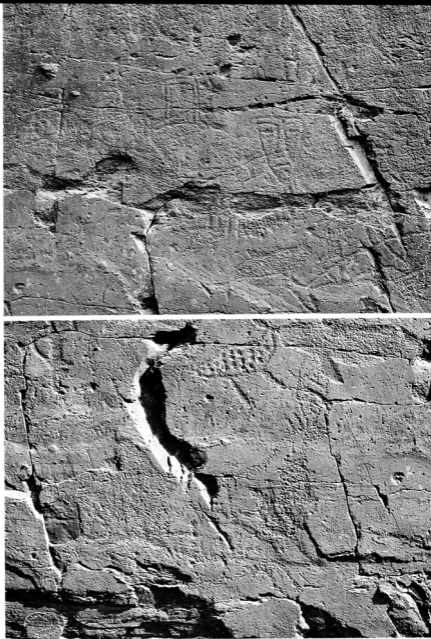
도면19. 반구대 암각화 B면-북부 돌막돌(上)과 C면 전경(下)



도면20. 빙구대 암각화 C면-부분(上:상단, 下:중단)



도면21. 반구대 암각화 C면-부분(上:좌하단, 下:右하단)



도면22. 반구대 암각화 C면-부분(上:C-67·70주변, 下:C-74주변)



도면23. 반구대 암각화 C면-부분(上:C-64주변, 下:C-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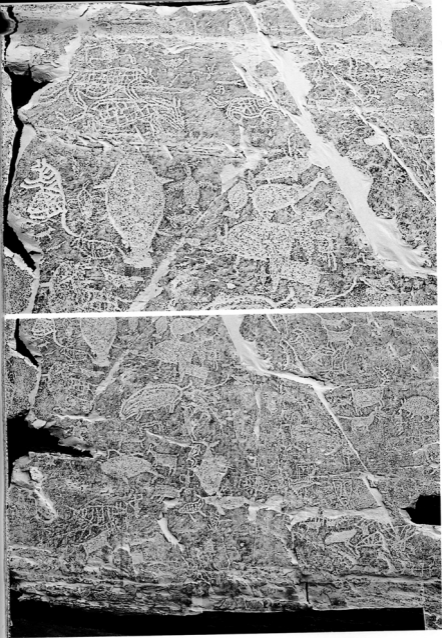
도면24. 빈구대 암각화 C면-부분(上:C-15, 下:C-9·11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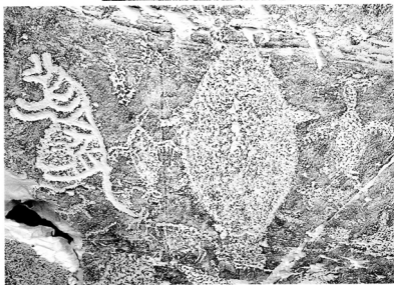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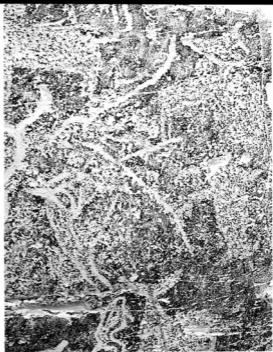
도면25. 반구대 암각화 C면-부분(上:C-7·8, 下:C-32주변)



도면26. 반구대 C면 탁본 전경(上)과 암각화 C면-부분(下:C-11·12)



도면27. 반구대 암각화 C면-부분 탁본(上:상단, 下:하단)



도면28. 반구대 암각화 C면-부분 탁본(上:C-50주변, 下:C-15·18주변)



도면29. 반구대 암각화 C면-부분 탁본(上:C-64주면, 下:C-84주면)



도면30. 반구대 암각화 C면-부분 탁본(上:C-66·70주변, 下:C-65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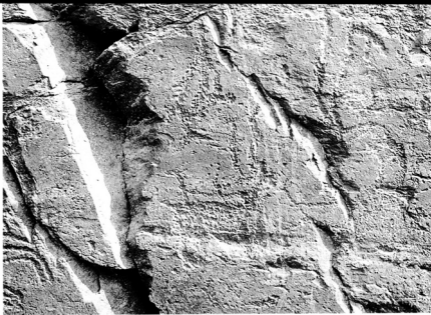
도면31. 반구대 암각화 C면-부분 탁본(上:C-59, 下:C-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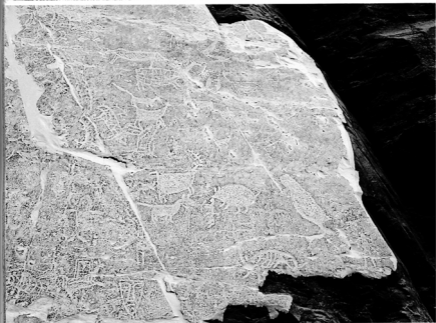
도면32. 반구대 암각화 D면 전경(上)과 부분전경(下)



도면33. 반구대 암각화 D면-부분(上:D-49·53주변, 下:D-11주변)



도면34. 반구대 암각화 D면-부분(上:D-2·4·5주변, 下:D-21·27주변)



도면35. 반구대 암각화 D면-부분(上:D-25주변)과 D면 탁본 전경(下)



도면36. 반구대 암각화 D면-부분 탁본(上:상단, 下:D-40·44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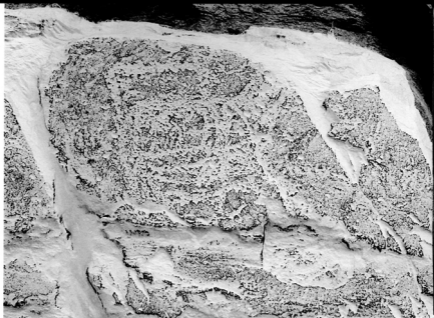
도면37. 반구대 암각화 C면-부분 탁본(上), D면 부분 탁본(D-19·21)



도면38. 반구대 암각화 D면-부분 탁본(上:D-17·18, 下:D-27·29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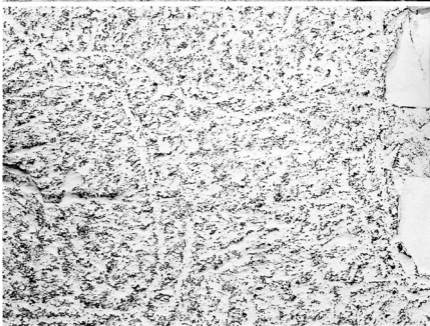
도면39. 반구대 암각화 E면 전경(上)과 탁본(下)



도면40. 반구대 암각화 E면 부분타본(上:E-9)과 F면 전경(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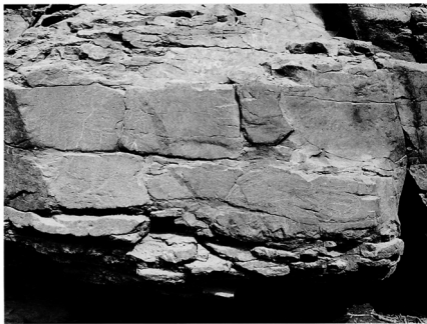
도면41. 반구대 암각화 F면 탁본(上)과 O면 전경(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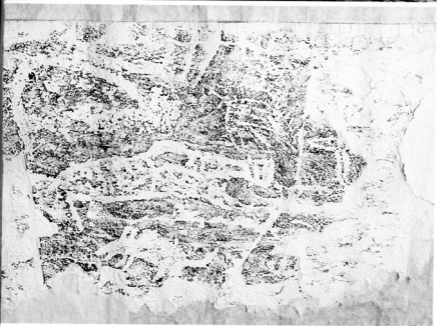
도면42. 반구대 암각화 F면-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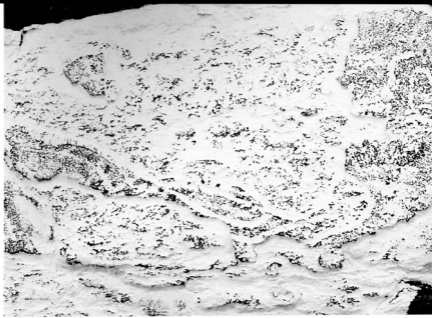
도면43. 반구대 암각화 H면(上)과 I면(下)



도면44. 반구대 암각화 J면(上:탁본)과 K면(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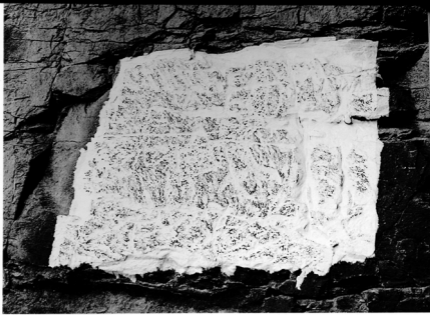
도면45. 반구대 암각화 L면 탁본(上), 부분탁본(L-1·3)



도면 46. 빈구대 암각화 L면 표본(上:L-9)과 M면 표본(下)



도면47. 반구대 암각화 N면(上)과 O면(下) 탁본



도면48. 반구대 암각화 출벽면의 형태미상의 포기흔

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6집

울산 반구대 암각화

2000年 11月30日 印刷

2000年 12月 6日 發行

編輯・發行：蔚山大學校博物館

蔚山市 南區 無去洞 山29番地

電話：(052) 259-2634

印刷：(주)금영문화사 電話：246-6734



ULSAN BAN-GU-DAE ROCK PICTURE

2000

**UNIVERSITY OF ULSAN MUSEUM
ULSAN METROPOLITAN CITY**